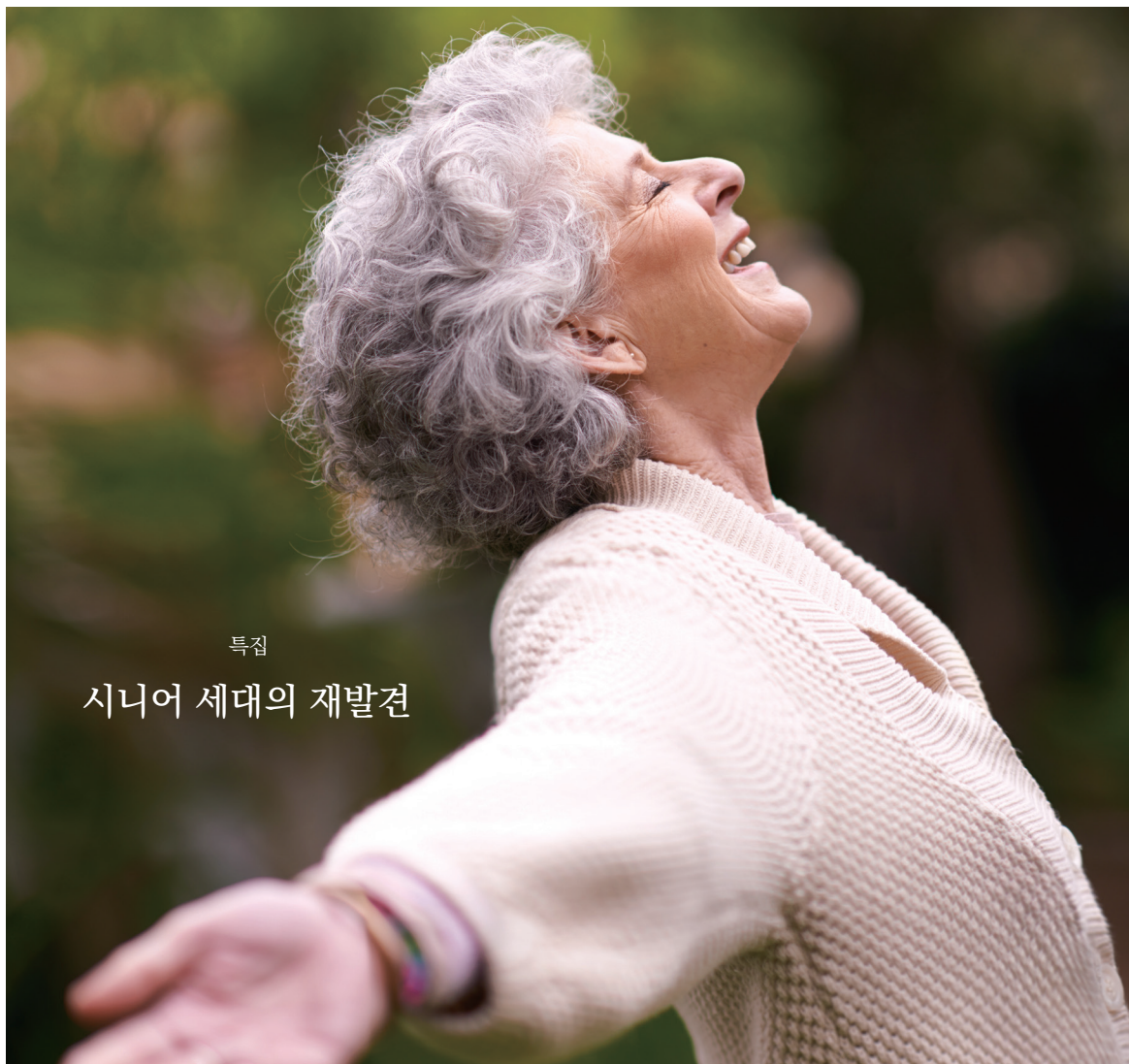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1+2
JAN + FEB
2024 vol.28



특집

시니어 세대의 재발견

사람 사이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EMCU) 총장

청년시론 우리의 목표는 박사가 아니라 작은 예수이다

문학로 세상 보기 인생의 끝에서 '인생'을 돌아보다

ISSN 2671-8731

Contents

JANUARY + FEBRUARY · 2024

시선

노육을 억제하고 봉사하는 노인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시니어의 아름다운 섬김의 기회 | 신국원 04

특집

시니어 세대의 재발견

시니어 교회의 비전과 실제 | 심우인 06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 전정림 08

믿음과 소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세대 | 김영윤 10

노인의 쓸모? - 기독교적 노인학의 빛과 그림자 | 김화권 12

시니어 세대의 사회참여 | 김동배 14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한국교회의 역할 | 손의성 16

나이 들어 필요한 것 | 박건우 18

좋은 노년의 삶을 위하여 | 최점일 20

다시 보는 액티브 시니어 | 오창섭 22

사람 사이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EMCU) 총장 24

섬김의 자리에서

예술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 서성록 28



2024. 1+2월호 | 제28호(통권 243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우리의 목표는 박사가 아니라 작은 예수이다 이재성	30
번아웃 탈출기, 온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김반석	32
청년 일터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 홍해지	34
'동역회'와 '기학연'과 함께 하는 삶 가운데서 방윤미	36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인생의 끝에서 '인생'을 돌아보다 추태화	38
--------------------------	----

미술을 보다

육체의 쇠락: 장 바티스트 피갈의 <나체의 볼테르> 감상 심상용	40
--	----

책을 보다

백세시대 시니어로 살기 전명희	42
미디어는 종교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상상한다 석중준	44
어깨 위의 어깨로 이진희	46

교회 路

정릉교회 정릉평생대학 소개

섬김의 대상을 넘어 섬김의 주체로 윤재호	48
소감문 : 백발은 영광의 우리 면류관 이승헌	49

온전한 지성

판 프린스터리의 기독교 세계관(I) :

생애와 배경 황영철	50
--------------	----

소식

사무국 소식	52
관련기관 소식	53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노욕을 억제하고 봉사하는 노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동역회 명예이사장)



노인들이 모이면 '효도를 한 마지막 세대며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첫 세대', 혹은 비슷한 내용으로 자신들의 서글픈 처지를 푸념한다. 다른 나라 노인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노인들은 특별히 불행하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빨리 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에 이르게 한 주역인데도,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에서 OECD 1위라는 데서 나타나듯이 천대받고 있다. 뼈 빠지게 일했지만, 부모, 자식 돌보느라 노후대책에 소홀했고, 자식들의 높은 성적, 좋은 학교에 목매느라 인성 교육은 게을리해서 역사상 가장 무례한 세대를 생산해 놓았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서 걸맞게 처신하는 것이다. 그래도 청년이 좀 과도하게 큰 꿈을 꾸고 좀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꿈을 이루려는 것은 용인될 뿐 아니라 심지어 장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그러한 과욕은 채울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도 줄 수 없다. 노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노욕(老慾)을 부리는 것이다. 이룩하고 싶

은 것은 많고 중요한데 살날이 많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꼭, 그리고 빨리 이루려고 허겁지겁 달려들 수 있다. 결국 사회에 해만 끼치므로 이제까지 쌓은 명예도, 위신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무대 한 가운데 서서 설칠 생각은 얼른 버리고 멀찍이 물러서서 거들 수 있는 일만 조용히 하면 된다. 능력과 상황이 허용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도 큰 위로며 복일 수 있다.

지금 노인 세대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선진국으로 키웠지만, 이들이 습득해서 이용했던 지식, 기술, 경험 등은 오늘날 대부분 쓸모없게 되었다.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격언이나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 빌려와라"라는 충고는 옛날 아프리카나 사회가 급변하지 않는 덴마크 같은 곳에는 가치 있는 교훈일지 모르나 오늘의 한국에는 설득력이 없다.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곱게 늙는' 비결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노인들이 한국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공로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판적이다. 원망스럽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역시 조용히 점잖게 할 일만 하여야 젊은 교인들이 존경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다. 물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자투리 일들이 여기저기 조금씩은 남아 있다. 노인들은 그런 일을 찾아수행하는 것이 시간과 힘을 쓸모 있게 쓰는 길이다. 대학에서 젊은 교수들은 대학원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고 노인 교수들은 신입생들을 위해서 쉽지만 무시될 수 없는 '입문'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폐지를 주어 팔고 아파트를 경비하는 것도 그런 일이다. 하릴없이 소비나 즐기고 사회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은 경험과 아직도 남아 있는 힘과 재능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수행하면 여생은 가치 있게 된다. 최근 여러 그리스도인 교수들이 은퇴 후에 선교지에 설립된 대학들에 가서 강의로 봉사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주 멋진 선택이다. 은퇴해도 여전히 건강하고 연금이 생활비를 보장하는데도 평생 쌓은 소중한 교육경험과 지식은 물어 버리고 등산이나 바둑 같은 것으로 여생을 보내는 것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무책임이며 낭비라 할 수 있다. 모든 노인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건강을 돌보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에게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며 조금의 봉사라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나라에서는 건강해야 보험 재원이 절약되어 꼭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귀찮을 수 있지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필요한 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노인들의 의무이며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젊은 세대와 정부도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든 노인들이 OECD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많이 자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불효와 배은망덕의 문

화를 그대로 두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일 뿐 아니라 '고려장' 전설이 가르치듯 젊은 세대 자신들의 미래도 불행하게 만든다. 노인들이 건강과 최소한의 자존심을 유지하도록 돕고 보잘것없더라도 그들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은퇴한 교육자들로 '도덕경찰대' 같은 것을 조직해서 비행 청소년이나 버릇없이 구는 시민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노인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능력을 가치 있게 이용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천천히 변하는 것도 많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한다. 그러므로 긴 세월과 시행착오를 투자해 습득한 노인들의 지혜는 모두가 다 금과옥조(金科玉條)는 아니지만, 모두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엄청난 낭비다. 그들의 주장을 100% 따르지는 않아도 경청하고 참고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을 다루는 문제에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돕는 것 못지않게 노인들의 위신을 세워주고 아직도 할 일 있는 유용한 구성원이란 자존심을 갖게 하는 것이 노인들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시니어의 아름다운 섬김의 기회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이번 호의 <특집> 주제는 '시니어의 재발견'입니다. <시선>은 그리스도인이 고령화 시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존경받는 시니어는 평생의 경험과 재능으로 사회에 공헌하며,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되, 국가와 사회도 노인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존중의 방법이라 했습니다. 특히 우리 회원 중 학자들은 퇴임 후 선교회 대학에서 봉사할 것도 권합니다.

<특집>은 독립된 시니어 교회의 목회를 했던 심우인 목사님이 엮습니다. 신앙적 성숙함으로 흔들림 없는 어르신들이 사역할 공간을 열어줄 것을 권합니다. 전정림 목사님은 진도에서 40여 년 목회 후에 알코올 중독자 섬김과 천 그루 넘는 종려나무를 가로수로 길러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김영운 목사님은 개척 2년 차 교회지만 인근의 실버 아파트를 전담할 사역자를 세워 섬기는 중입니다. 시니어 부서는 영유아를 돌봄으로 서로 세워가는 모습도 소개합니다.

김희권 교수님은 성경이 노인을 하나님의 동역자, 섭리의 증언자, 전통적 지혜의 보고라고 부르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김동배 교수님은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통해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년기 문화를 이루는 일에 교회가 앞장설 것을 당부합니다. 손의성 교수님은 사회보다 빠른 교회의 고령화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데, 시니어 성도들은 일반 노인들보다 활동 의지가 훨씬 높아 교회의 성장 둔화와 침체 극복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건우 교수님은 교회가 치매 같은 질병과 독거와 빈곤에 처한 시니어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점일 교수님은 30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대학과 교회 청년들 사이에서 기독교 세계관 사역을 해오면서 준비하신 은퇴의 삶을 소개합니다. '의미경영'의 대표로 교육과 상담, 코칭을 해온 오창섭 교수님은 사역 소개와 더불어 젊은 시절 힘쓰던 비전과 사명의 무거운 삶을 내려놓은 가벼운 삶도 행복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우리 공동체의 시니어인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 양승훈 총장님의 사역을 양성만 교수님이 들었습니다. 국립대 교수의 '철밥통'을 내려놓고 캐나다 VIEW 사역을 마친 후 다시 새로운 섬김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 사역을 이어받게 한 경험과 주위의 사례를 통해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자세가 요구되는지 알려줍니다. 청년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따라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매번 우리 소식지에 <예술을 보다>를 써 주는 서성록 교수님은 <섬김의 자리>에서 미술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면서 신앙과 직업을 통합하여 시야가 넓어진 경험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인 미술가 공동체인 '아트미션'을 섬기며 매년 책을 발간하는 사역의 기쁨도 소개합니다.

<청년 시론>에서 이재성 형제는 박사과정 연구실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을 '감옥'에서도 생명의 능력

을 발휘한 신앙의 인물들에게서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박사나 교수보다 '작은 예수'가 되려는 믿음과 인내로 걸어간다고 하네요. 신학도요 '만능 백업' 사역자인 김반석 형제는 교회사역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하는 가운데 상담학을 배우며 자신을 알아가고 그것을 연구 주제로 삼게 된 경험을 나눕니다. <청년 일터>에서 흥해지 자매는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임용이 된 후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가며 자신을 내내 "사랑과 부지런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방윤미 간사님은 자신의 세계관적 회심 이야기와 동역회 사무국을 섬기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에선 추태화 교수님이 <버킷 리스트>가 보여주는 삶의 끝에서 돌아본 '인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질병으로 찾아오는 죽음을 앞두고 함께 여행을 나선 두 친구의 모습에서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임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서서평 선교사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좌우명을 생각하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예술을 보다>에서는 심상용 교수님이 70대의 노쇠한 볼테르의 빛나는 두 눈을 묘사한 피갈의 작품을 '육체의 쇠락'이라는 주제로 풀이합니다. 볼테르는 난파선 같은 삶 가운데서 구명보트에서도 노래를 잊지 말라 했던 계몽주의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즐거워할 삶을 도모하라 했던 토마스 아 켐피스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은총의 산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새롭게 되기를 꿈꿉니다.

<책을 보다>에선 전명희 교수님이 김동배 교수님의 <백세시대 시니어로 살기>을 소개합니다. 나이 들어감을 아름답게 수용하고 승화시킨 모습을 모든 세대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쓰신 책이라고 추천합니다. 석준중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 사회과학자 박진규 교수님의 신간 <미디어, 종교로 상상하다>를 소개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은 김기현 목사님의 신앙 고

전 읽기 근작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의 서평을 통해 좋은 책 읽기의 기쁨과 유익을 나눕니다.

<교회로>에선 윤재호 장로님이 86세 된 학생 이승헌 집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워진 '정릉평생대학'의 설립 정신과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의 면면을 소개합니다. 정릉교회는 노인이 섬김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릉평생대학'을 운영해왔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1호 '사회교육장'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섬김의 장인 것이 자랑이라 했습니다.

<온전한 지성>에서는 황영철 목사님 판 프린스터리의 생애와 그의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를 나눕니다. 판 프린스터리는 프랑크혁명을 반대해서 일어난 반혁명 정신의 원조입니다. 앞서 소개된 아브라함 카이퍼의 동역자이자 멘토이기도 했지요. 이번 호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그의 걸작인 <불신앙과 혁명>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금번 호엔 특히 많은 시니어들께서 평생 쌓은 지혜와 삶의 모범을 나누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모두 강건하셔서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격려와 충고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수고를 마지 않고 애써 주신 편집위원들과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시니어 교회의 비전과 실제

심우인 (부천신광교회 담임목사, 전(前) 선한목자교회 '갈렙교회' 담당목사)



한국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물론 유럽이나 이웃 나라 일본처럼 고령 사회의 나라들이 많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이다. 일본은 고령사회가 되는 데 24년이 걸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고령사회가 되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인하여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고령화는 한국사회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는 동시에 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교회의 성장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증가에 발맞춰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고령화도 더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고령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 큰 문제는 목회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성도들은

고령화가 되었는데, 교회는 아직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의 패러다임 속에 있다.

이제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시니어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은퇴한 시니어 성도들이 더 이상 방관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체로서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시니어 성도들이 일어나야 한다.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고, 세대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는 주의 군사들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선한목자교회(기감)에서는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시니어 교회를 세웠다. 선한목자교회 안에 있는 노인교회 공동체, '갈렙교회'이다. 교회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 시작되었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필요성이 더욱 부각했다.

선한목자교회 '갈렙교회'는 교회의 시니어 세대가 별도로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우자!", "영광의 날을 준비하자!"라는 비전을 품고 2010년 12월 교구로 출발해서, 2012년 12월 '갈렙교회'로 창립하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다. 교구가 시작된 지 14년, 교회로 독립한 지 12년 차가 되었다. '갈렙교회'는 모든 의사결정과 활동, 재정이 독립된 형태의 교회 공동체이다. '갈렙교회'는 '목양사역'(속회)과 '위원회 사역'이라는 크게 두 기둥으로 조직되어 있다.

노년에는 삼중고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재정의 결핍이며 두 번째는 질병과 건강 문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의 결핍, 곧 소외감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물리적인 부분이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세 번째인 관계의 결핍 부분이다. '갈렙교회'는 소그룹 활동인 속회를 통해 삶의 끈끈한 나눔을 통해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고 관계성을 갖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 사역'을 통해 영광의 날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열어드리고 있다. 노인대학 정도에 국한된 사역을 넘어 교회 공동체로서 왕성하고 활발한 사역의 틀을 마련하고, 얼마든지 시니어 사역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갈렙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이 독립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다. 시니어 성도들 스스로가 사역을 기획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다. 물론 그에 필요한 재정 운영도 주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독자적이고 다양한 사역이 가능하다.

시니어 사역에 있어 유의할 점이 있다. '시니어 세대'라

고 말하는 이들의 연령대 폭이 상당히 넓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섬김을 받아야 할 성도가 있다. 그러므로 시니어 사역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액티브 시니어', 곧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사역의 장을 열어야 한다. 주체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계획해서 교회를 세우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섬김을 받는 대상에서 섬길 수 있는 자발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사역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시니어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사역을 전문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물결이 불어온다면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누가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야 할까? 나는 시니어 성도들이라 믿는다. 왜냐하면 이미 부흥을 경험해 본 세대이기 때문이다. 시니어 세대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안다. 시니어 세대에게는 깊은 신앙의 연륜과 믿음의 성숙이 있다. 흔들림이 없고, 시간적인 여유와 재정적 헌신이 훈련되어 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갈망이 누구보다 크다. 이러한 시니어 세대를 깨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명자로 세우는 일이 한국교회가 감당할 귀한 사명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심우인

부천신광교회(기감) 담임목사이다. 2023년까지 선한목자교회의 시니어 독립교회인 '갈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전정림 (진도 칠전교회 원로목사)



젊은 날에 지도 한 장을 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진도라는 심을 찾아 개척지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간척이 있었다. 그 여정이 결국은 사업을 정리하고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이삿짐을 트럭에 싣고 대전에서 출발하여 9시간 만에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계기가 되었다. 진도의 가난한 시골 농촌 어느 여자 집사님 헛간채에 방을 들여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생활하면서 어느 집사님 밭 귀퉁이에다 천막을 치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다. 당시에 나의 신분은 집사였고 재정적인 여유는 10만 원이 전부였다. 교회 개척 2년이 되니 성도가 15명이 되었다. 생활비는 5만 원을 받고 예배당을 건축할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교회 개척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셨다. 진도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마을에서 마을 이름을 따라 칠전교회를 세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고, 2022년 11월에 40여년의 사역을 마쳤다. 은퇴 후에는 이제 원로목사로서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매일의 삶이 제법 여유가 있는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그어느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40여 년의 농촌목회에서 나를 이끌어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라는 성경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작은 시골교회를 섬겨왔다. 목사가 나이 들어 은퇴하고 나면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가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가 된다. 가장 현명한 방안 중 하나는 은퇴 후에 멀리 떠나주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 교회의 현실이다. 이 또한 멀리 떠나도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가 고민스럽다. 일반 성도와는 달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대로 교회에 나오시면, 목회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부담스러워하는 현장을 많이 보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여유가 있고 규모가 있는 교회는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만, 시골교회에서는 은퇴하면 대

부분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나 역시도 30~40명 되는 교회를 섬겨왔기에 은퇴 후 현재 13평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나 조금도 부끄러움은 없다. 그 이유는 은퇴하면서 좋은 집에서 걱정 없는 은퇴비를 받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은퇴 후의 선물은 자녀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은퇴비도 많이 받고 자녀도 잘되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이겠지만 후손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은퇴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40년의 목회를 하면서 5명의 자녀를 길렀다. 3명은 몸으로 낳은 자녀이고 2명은 오갈 데 없는 아이가 있어서 함께 자고 함께 밥 먹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돌보았더니, 이들이 결혼하더니 '목사님'이라는 칭호는 멀리 가고 '아버지'라는 칭호를 써서 5명의 자녀가 되었다. 시골교회에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이들은 많은 고생을 하며 학교를 다녔지만 불만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 장남은 목회자가 되어 부산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목사가 되었고, 딸과 사위는 선교사가 되어서 큰 영향력 있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는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본다. 나는 이것을 가장 귀한 은퇴선물이라고 생각하니 노후의 삶이 하루하루가 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진다.

그렇다고 자식만 생각하고 한가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나는 목회 사역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변화시키는 국제금주 학교 사역을 지난 30여 년간 목사님들과 함께 섬겨왔다.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 변화되어 새사람이 되고 사회에 소중한 일꾼들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종종 말씀을 부탁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그저 기쁘고 감사하다. 농촌교회 사역을 오래 하며 얻은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에도 강사로 불러주어서 감사하다. 미국

에서까지 설교 요청도 와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은퇴 이후의 삶이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채워 가고 있다. 노후의 삶 가운데 누구나 겪는 문제 중의 하나는 건강 문제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육신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먹는 문제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좌우되기도 한다.

은퇴 전에는 매일 새벽 4시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새벽 예배로 시작해서 900여 평의 예배당 용지를 조정하며 부지런히 일했더니 건강을 주셔서 청년 때 73킬로 체중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지금도 5시면 일어나 두 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천여 그루의 종려나무를 기르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 40년의 농촌목회였지만 시간과 때를 소중히 여겨 군인 부대에 예배당도 건축했고, 진도지역에 기아대책 진도지부도 설립했으며, 비록 섬 지역이지만 목사님들과 함께 국제적인 찬양 축제를 개최하여 조직위원장을 여러 번 맡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나의 목회 사역에서 가장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은 국제금주 학교 사역이었다. 노년 삶의 기쁨과 여유는 주어진 삶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지난날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라고 생각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전정림

진도 칠전교회 원로목사이다. 진도에서 총무교회와 칠전교회를 개척하여 40년간 목회를 했으며, 기아대책 진도지부 설립과 국제금주 학교 이사장으로 섬겼다. 목포노회 노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교회갱신협의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믿음과 소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세대

김영윤 (아름빛교회 담임목사)



2023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서는 올해(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웃돌게 되고, 내년(2025년)에는 우리 사회가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전망한다. 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40년에는 34.3%, 2072년에는 47.7%에 달하리라 예측한다. 아울러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에 이르면 50세를 넘고, 2072년에 다다르면 63.4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예견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던 2022년 4월, 아름답빛교회를 개척하였다.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염두에 두고 자연스럽게 '교회 내 시니어 사역'을 고민하게 되었다. '다음세대'를 향한 교회의 관심과 투자는 당연하다 못해 절실하다고 다들 이야기

한다. 65세 이상 '시니어 성도'를 향한 배려와 돌봄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 역시 못지않게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중이다. 실제로 필자가 개척한 교회 인구를 살펴 보더라도 1,300여 세대로 구성된 '실버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지역 내의 65세 이상 인구도 결코 적지 않다. 교회를 개척한 이후 100여 분의 시니어 성도께서 등록하셨고, 앞으로 약 10년이 지나게 되면 시니어 연령에 해당하는 성도가 교회 장년 성도의 절반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많은 '베드타운' 지역 특성상, 유치, 유년(초1~3), 소년(초4~6), 중등부, 고등부 등으로 다음 세대 부서를 세분화하였다. 해당 연령의 자녀들에게 맞는 신앙교육과 영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그와 동시에 '시니어 전담 사역자'를 교회설

립 전부터 배치하여 동역하는 중이다. 모(母) 교회가 65세 이상 성도를 중심으로 '시니어 부서'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필자의 교회에서는 그 흐름을 계승해 가고자 한다. 현재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시니어 성도 전체 모임과 간단한 식사와 소그룹(다락방)을 이어서 진행하고 있다. '시니어 부서' 및 소그룹이 '영적 공동체, 사랑 공동체, 사명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기대하며 기틀을 다지는 중이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시니어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가지 봉사를 진행하기로 결단하였다. 오전 10시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영유아를 돌보는 봉사이다. 이는 교역자나 교회에서 요청한 일이 아니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렵게 교회에 온 영유아 자녀의 부모들이 '오롯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는, 여러 시니어 성도의 마음이 모인 결과였다. 새해 첫 주일을 지나며 시작된 이 섬김으로, 시니어 성도께서는 보람과 기쁨이, 배려받는 영유아 부모에게는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쌍둥이를 키우면서 자모실에서만 예배하던 한 성도께서는 "아이들을 돌봐주시려고 두 팔 걷고 나오신 분들께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서 아가들을 키우고 아름다운 빛을 교회와 이웃에게 비추도록 준비하겠습니다."라는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오셨다.

이 일을 겪으며 담임목회자로서 깨달은 바가 있다. 교회 내 시니어 성도는 '누군가로부터 배려받아야 할 교회 내의 어르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교회 내의 일꾼'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시니어 성도 각자의 내면 건강, 영적 건강, 신체 건강을 헤아려야 하겠지만 '기쁘게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시니어 성도님을 대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필자가 섬기는 아름답빛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시니어 부서' 전담 사역자에게 교회 설립 준비 기간에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당 교역자가 시니어 성도를 주축으로 '경조팀'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성도에게 있는 큰 능력인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나이 들과 죽음의 이슈를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면서, 사랑과 격려 그리고 꿈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시 71:18, 새번역). **FAITH & LIFE**



 글쓴이 김영윤

본당우리교회 29개 분림개척교회 중 한 곳인 '아름빛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학교 신학과와 총신신대원을 졸업하였다. "목회자가 심방을 하지만 그 심방이 목회자를 잡아준다"라는 확신으로 한 영혼에 마음을 기울이는 목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의 쓸모? - 기독교적 노인학의 빛과 그림자

김회권 (숭실대 기독교학과 구약학 교수)



구약성서는 이 세상을 유일한 생명의 터전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썼던 책이다. 구약성서 저자들은 땅에서 오랫동안 형제자매적 연합을 누리며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정의했다(시 133:3; 미 4:4). 영생은 이민족의 침략 위협에서부터 자유롭고 지주와 압제적 탐관오리의 수탈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언약백성(그 핵심이 이스라엘 자유 농민)이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평안히 사는 삶이었다(왕상 4:24; 미 4:4). 구약성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책들은 현세에서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후손들을 많이 낳아 번성을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보았기에, 늙어가는 것이 죽음 너머에 있는 신약성서적 영생으로 가는 필수 여정임을(고전 15:42-44; 고후 4:16-18; 고후 5:2-4) 의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약해지고 늙어가 마침내 죽는 것은 허무한 일이라고 본다(전 11:9-12:8). 전도서 12장 2-8절은 뼈 빠지게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귀로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창세기 3장 18-19절에 대한 우울하고 슬픈 은유적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시편과 욱기의 여러 구절도(욥 7:21; 10:21-22; 14:14; 시 28:1; 88:5, 10-12; 89:48)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슬퍼한다. 이처럼 구약은 노쇠와 쇠락의 과정을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로라고 본다.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한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시 71:9).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구약성경에 이 노쇠와 쇠락의 과정을 거치는 노인의 존재가치와 쓰임새를 다양하게 말하는 말씀들을 허락하셨다.

1.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피조물의 허무함을 증언하는 지혜자로서의 노인

노인은 희생과 소진을 통해 소멸해 가는 비장한 나그네, 죽음과 친구가 되는 시점, 짐착에서 벗어나 천상으로 비상하는 단계를 대표하는 지혜자이다. 건강 짐착적 청춘 예찬 시대인 오늘날, 노인들은 폐기 처분된 기계부품처럼 보일 수도 있다. 최강동안 미남미녀가 되는 비법, 주름살을 제거하는 의료기술, 그리고 젊게 보이는 화장품 산업이 번성한다. 아마존, 일론 머스크 등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의 최대투자처 중 하나

는 장수학이자 영생학이다. 이 모든 시도는 죽음의 허무하고 장엄한 파괴력 앞에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 피조물적 쇠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자리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병들고 연약해짐, 그리고 죽음으로 직진하는 노쇠와 쇠락의 어둔 면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빛을 본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생살이의 허무함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 허무를 극복하게 도우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각하기 위함이다. 시편 103편 17절은 현세의 허무성을 극복하는 단 한 가지 길을 제시한다.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2.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늙은이

성경은 생물학적인 노인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언한다. 시편 9장 12-14절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심긴 잣나무와 종려같은 의인의 경우 늙어도 여전히 번성하며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얼굴빛이 청청할 수 있음을 노래한다. 십지어 요엘 2장 28절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며 꿈꾸는 늙은이의 예언자적 영성을 노래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꿈꾸는 늙은이는 이상(vision)을 간파할 줄 아는 젊은이와 동역할 수 있다. 임종을 맞은 늙은 부모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후손의 미래를 좌우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창 49:1, 33; 신 33:1). 젊은 세대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노리지 말고 임종 때 침상에서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복을 비는 부모의 기도를 상속할 수 있어야 한다. 출애굽기 24장

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 세대의 아름다운 세대 통합적 리더십을 증언한다. 모세와 아론(노년), 나답과 아비후(장년), 그리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시내산에 올라가(5, 9-11절) ‘노장청’ 연대를 이루는 모습이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발 아래서 펼쳐진 청옥을 편 도로갈고 청명한 하늘같았다(출 24:10).

3.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기억하는 빅데이터이자 타임캡슐인 노인

노인은 직업적 성공 지혜의 보고이자 시행착오적 실패학적 성찰 지혜의 보고(寶庫)이다. 노인은 전통적 지혜, 즉 생존 지혜, 국가 및 가정경영 지혜, 성공과 실패의 과정에서 터득한 지혜의 보고이다. 후세대에게 기여할 것이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이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은 흰 머리 노인에게 공경을 표하라고 권고한다. 심지어 노인은 자신의 쓰러린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청년 세대에 늙을 때를 대비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전 11:9-10). 그래서 경제적으로 강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인 자녀들은 늙은 부모를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공경해야 한다. 그러면 자녀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오래 차지할 수 있다(출 20:12). **FAITH & LIFE**



✍ 글쓴이 김희권

송실대 기독교학과 교수이다. 1979년 선교단체 ESF(한국기독교대학회)의 성경 읽기 모임에서 화심하고 신앙훈련을 받았으며,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한 후 11년간 간사로 섬겼다.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성서신학 석사 및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김희권 목사 청년 설교 1·2·3·4>,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도행전 1·2>,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여호수아·사사기·룻기>,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상·사무엘하>,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 등이 있다.

시니어 세대의 사회참여

김동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빈곤과 질병은 언제나 문제시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 활동성을 갖고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자기 표현과 사회참여의 욕구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다. 특히 이제 노년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풍요의 시대를 거치면서 개성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는 이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근자에 노년학(gerontology)의 주요 연구 주제로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라는 개념이 각광을 받고 있다. 건강관리를 통해 인지능력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학습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의미 있는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년기에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삶을 말한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초고령사회에 중요한 과제이다.

‘성공적 노화’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관심은 ‘신노년 문화’이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이 인식해 왔듯이, ‘성공적 노화’란 노년기가 고독하고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활기차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문화이다. 어른으로서 자기신념이 있고, 어린이와 젊은이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능력이 있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들이 향유하는 문화이다. ‘신노년 문화’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학습과 여행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취미활동, 공연, 스포츠, 시민 활동, 권익 운동, 이웃 돌봄과 나눔 등이 있다. 본인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참여하면서 자기를 계발하고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활동에도 관여하는 것이다. 이런 노인을 ‘시니어(선배시민)’라고 부를 수 있겠다.

우선, 이러한 긍정적인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 중요하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은 인생의 전반부에 취업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정규교육 혹은 직업교육과는 달리 제3기 인생 설계를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본질과 우주적인 깨달음을 포함하는 교육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던 은퇴자에서부터 뭔가 아름다운 삶의 마감을 원하는 촌로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의 대상자는 다양하다. 퇴직 준비에서부터 죽음 준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대인관계훈련에서부터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평생교육은 교육대상의 욕구에 따라 재무설계, 건강, 주거문화, 가족, 심리, 문화예술, 죽음, 영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복지관, 지자체, 종교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품위 있는 노년 생활을 보내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진정한 어르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봉사는 참여자에게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케 하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유지시킨다는 의미에서 활기찬 노년의 필수항목이다. 이는 노년기의 고독과 소외감을 떨쳐버리고 단힌 삶을 열린 삶으로, 받는 삶을 주는 삶으로, 그리고 수동적인 삶을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 자기 연령대 혹은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신나는 집단여가활동이다. 노인 자원봉사는 '과소 이용된 거대한 자원(huge untapped resources)'이라 부른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체 노인의 6~7%가 되는데 이를 적어도 2배 정도는 증가시킬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노년기는 생각하고 결심하기에 따라 인생의 가장 축복받는 시기이거나 혹은 가장 불행한 시기이다.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의 노인에 비해 대체로 더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미래지향적인 생활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지닌 직업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삶의 지혜가 사장되어 버려지지 않도록 사회참여 활동이 확대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3단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는 배우기(learning), 둘째는 즐기(Enjoying), 셋째는 가르치기(teaching)이다. LET(즐거운 노년을 許하라!) 전략이다. 즉, 노년 생활을 창의적으로 엮는 방법으로서 본인의 관심 영역을 새로이 배우고, 그다음은 이를 즐기고 나누며, 결국 가르치기에까지 발전된다면, 바야흐로 노인은 생산성이 끊어진 퇴락한 늙은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진정한 어르신 혹은 스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니어의 출현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동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이다.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이사장, (사)한국노인살롱복지원 원장, 새문안교회 공로장로, '50+ 아카데미' 지도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로 <실행하는 교회 사회봉사>, <제3의 인생설계 : 신노년문화>, <백세시대 시니어로 살기> 등이 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한국교회의 역할

손의성 (배재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년 5월 17일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서 '국가 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세계적 석학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세계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만(David Coleman) 교수를 초청하였다. 그를 초청한 이유는 콜만 교수가 이미 2006년에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소멸하는 1호 국가로 한국을 거명했기 때문이다. 초저출산과 유래를 찾기 힘든 고령화속도를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해답을 내놓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천402명으로, 20대(619만7천486명) 인구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여 명 늘어난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하여, 내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 위협으로, 노동력 부족 국가로의 전환, 노동력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 재정수지의 악화, 노후소득의 불안정, 농어촌과 지방의

공동화(空洞化)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고령화의 큰 파도는 한국교회에서도 크게 일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1년에 실시한 '한국 종교 현황' 조사에서 개신교인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나타났으며, 같은 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종교지표' 조사에서는 26%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에서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2015)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을 말하는 고령화율은 2015년에 13.3%이며, 개신교인 중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14.3%로 나타나 교회의 고령화율이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05년 대비 2015년 60대 이상 총인구와 개신교인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총인구 중 60대 이상이 49% 증가한 것에 비해 개신교인 중 60대 이상은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고령화 증가 속도가 한국사회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점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미래사회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고만 단정 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노년층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과거의 노년 세대보

다 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해진 노년층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결과의 긍정적인 측면은 고령자의 특성 변화에 있다.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과거의 노인세대와는 달리 더 활동적이며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을 뿐 아니라, 보다 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노후의 삶을 설계하고 조정해 나가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일컬어 '뉴시니어'(New Seniors)이라고 부른다.

전 지구적인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통의 노화'(Normal Aging)에서 '최적의 노화'(Optimal Aging)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와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등 적극적 노화 개념에 기초한 노인 정책과 교육 및 복지 체계가 수립되어왔다.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시대를 가리켜 '신노년 시대'(New Aging)로 지칭한다. '신노년 시대'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의존에서 자립적인 삶의 추구, 활동적 노년으로의 전환 등의 특징을 갖는다.

한국목회데이터연구소(2023)의 <기독교 통계>(159호) '고령 교인의 신앙생활 및 인식 조사'에 의하면, 60대의 절반 정도인 49.5%가 '노인대학' 혹은 '경로대학'이란 명칭이 시대에 뒤떨어진 명칭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시니어는 자신을 노인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인지 연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2021)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한국노인 표본에서 노년기 시작 연령 기준 70세 이상이 74.1%인 것에 비해, 한국목회데이터연구소(2023) 설문 분석에서는 개신교 노인들이 노년기 시작 연령을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8.5%로 일반 노

인 표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개신교인들의 인지 연령에 의한 노화 인식이 일반 노인들에 비해 더 긍정적임을 볼 수 있다. 또한 75세 이후까지도 활동 가능하다는 응답이 55%가 넘는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시니어 교인들의 활동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신교인 60대 중 30.2%는 교회가 자신을 교회의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70대 또한 27.7%가 자신을 여전히 교회 사역에 참여 가능한 대상으로 봐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사회는 물론 한국교회가 시니어들을 중심 세력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힘을 집중한다면 한국사회와 교회의 성장 둔화와 침체를 극복할 뿐 아니라 고령화 파도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 친화적 교회 혹은 연령 친화적 교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시대에 맞게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성공적 노화'와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시니어와 노인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와 위기에 잘 적응하도록 도우면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의 생산성과 활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의성

배재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연세대학교(학사, 박사), 숭실대학교(석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에서 공부했고, 현재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학회장, 배재대 인문사회대학 학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사회복지학개론>, <노인복지선교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3>(공저) 등이 있다.

나이 들어 필요한 것

박건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노인건강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은 장수국가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답해야 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장수의 축복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닥쳐왔다. 2030년 대한민국에 태어난 여자, 남자 모두 기대수명이 세계 1위가 될 거라는 연구자료도 나왔다. “오래 사세요”라는 인사말이 빈말이 되어가고, 혹 고령화가 국가의 운명을 쇠락시키는 원흉인 것처럼, 좀 부드럽게 표현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이 만연되어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남이 해주기 보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의 입장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치매와 우울증이다. 치매 인구는 이미 제주도 인구를 넘어섰고, 노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은 부동의 세계 1위이기 때문이다. 나이

먹는다는 말만 들어도 싫으나, 또 한해가 넘어갔다. 새해에 나는 한 살의 나이를 먹어 가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최근 노인 인구집단의 여러 생활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몸의 질환과 우울 및 인지 감소에 대한 관련성을 연구한 바 있다. 우울과 인지 감소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 요소를 집어넣고 인공지능기법으로 분석을 해보았다. 그리고 나온 결과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울과 인지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신체적 질병에 안 걸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울과 인지 감소와 연관성이 높았던 것을 연구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면, 혼자 사는 것, 가게 수입, 사회활동 및 레저 활동의 순서였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생각, 어디에 사는지, 배운 것이 많은지 적은지, 과거 직업이 어떠했던지 보다는 노년의 우울과 인

지 감소는 독거, 노인 빈곤, 그리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유무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는 사회적 활동 여부가, 여자는 독거의 문제가 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해보아도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우울과 인지 저하를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나온다.

첫째, 남녀 공히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도 자식에게 무조건 재산을 다 물려주고 자식에게 의지하며 사는 노인의 모습은 이제 아닌 것 같다. 노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 가입 및 저축 등의 활동이 중년 때부터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의 경우에서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의 문제는 삶의 질을 우울과 인지 저하라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최근 반세기, 핵가족을 강조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던 시대에 살았다. 나 자신도 “과연 자식들과 같이 사는 것, 혹은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치매와 우울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이제 나는 “같이 사세요”라는 답을 낼 수밖에 없다. 같이 사는 방식을 이제 새롭게 배워야 한다. 어디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 주일학교의 추억이 떠오른다. 경쟁을 가르쳤던 학교 그리고 사랑을 가르쳤던 교회.

셋째, 남성의 경우 사회활동 그리고 레저 활동의 장이 있어야 한다. 직업을 그만두는 순간 한국의 남자는 그

저수그러들 수밖에 없다. 너무나 열심히 일했던 세대였기에 너무나 놀 줄 모르는 세대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한다. 레저 활동이라는 것을 접해 보지 못한 세대가 지금 노인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과연 직장을 그만두면 남자의 사회활동과 레저 활동도 그만두어야만 하는 것인가? 젊은 시절 그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일하던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한때 청소년 문화의 중심이 되었던 21세기 교회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노인이기 때문에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우울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우선 해결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하면서 정치적 발언만 일삼는다고 무엇이 바뀌는가? 주장만으로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늘어난 제2의 삶에 대해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울과 망각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할 때 교회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 독거보다는 공동체를, 혼자 노는 것보다는 같이 노는 공동체, 외로움을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혼자 할 수는 없다. 문화와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최장수 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이 사랑 공동체의 중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또 다시 매달려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장수의 축복을 예수와 함께. **FAITH & LIFE**



 글쓴이 박건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교수이다. 동(同)대학 의과대학 노인건강연구소 소장, 고려대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 대한치매학회 명예회장,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서울 정릉교회(예장통합) 장로이다.

좋은 노년의 삶을 위하여

최점일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의미 있는 노년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꾸려가려면 노년기 진입 이전에 좀 더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준비가 철실히 필요하다. 포르트만(Adolf Portmann)은 “평소에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한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도 “자신의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서 자신의 진정한 계획을 50세나 60세로 미루어 놓고는, 이제 조금밖에 살지 못하는 때에 삶을 시작하려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라고도 전한다. 성인기를 행복하게 보냈다 하더라도 노년기를 실패하면 인생을 충만하게 살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인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스러운 경험을 재조명(reflection)하여 구속(redeem)함으로써 현재 시기를 지혜롭고 의미있게 사용하려는 태도,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종말론적인 시간관을 견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가 둘 다 필요한 것이다.

은퇴 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관심 영역을 발견하거나, 또는 현재 진력하여 활용하고 있는 직업 전문성을 은퇴 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시켜 사회생활에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30대 후반부터 하나님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과 관련된 서적을 숙독하고 실

제적인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는 경험을 토대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지역교회에서 대학생, 청년, 장년을 대상으로 세계관 훈련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수로 정년을 마친 이후 시간제(part-time) 봉직으로 근무하면서, ‘치주’ 전문의로서의 직업 전문성을 진료 현장에 접목하여 다차원적으로 진료 시너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직업 전문성의 유형 및 고용 형태와 관련성이 높기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 용이한 모델은 아니라 생각된다.

사회가 노인에게 거는 낮은 기대감으로 인해 노인은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히기 일쑤다. 진정한 은퇴란, 1) 더 이상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것이고, 2)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며 현실을 수용하는 일이다. ‘내려놓기’는 힘을 추구하는 의지로부터의 해방인 동시에 더 폭넓고 더 깊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은퇴 후에 필자에게 내게 다가온 하워드 시 한 구절을 소개한다.

인생은 짧은 담요와 같다.
 끌어당기면 발끝이 춥고,
 밀어내리면 어깨가 싸늘하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무릎을 구부려 쾌적한 밤을 보낸다.

은퇴 이후 맞이할 노년기를 대비하여, 취미생활이나 자기계발에 진력할 새로운 영역을 중년기부터 탐구하여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는 중년기 왕성한 직업활동에서 활용해온 직업 전문성을 통상적인 은퇴 시점보다 장기간 연장하는 일도 가능하나, 이는 직업 특성과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어서 자유업에 종사하는 전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 하겠다. 하나의 변형으로서 직업 전문성을 유지하되 새로운 사회환경에 변형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노년기에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삶의 내용과 방향이 우선 하나님께, 이웃에게, 사회에, 그리고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meaning)와 가치(value)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후손들에게 남겨줄 자양분이 풍성한 학문적·문화적 유산(legacy)이나 자원(resources) 같은 것을 말한다.

생계와 세속적 성공을 위해 내달리던 '자연적 삶'에서 '문화적 삶'으로의 전환, 즉 자신을 계발해서 꾸준히 진보하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며, 직업 활동을 끝낸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으로 삶의 방식을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의 연해지고 인생 후반기를 우울하지 않고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은 바로 왕성한 독서나 문화활동을 통해 교양 역량을 쌓는 일이다. 노인만의 느긋함, 넉넉함, 여유로움, 겸손과 품위, 그리고 성숙함이 자리하는 아름답고 새로운 삶인 것이다. 청춘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노력해야 비로소 이뤄지는 예술작품과도 같은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나이 들어서도 책을 가까이하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정신은 계속해서 발

전해갈 수 있기에, 사이토 다카시 교수도 책 읽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최근 출간된 도서 중요한 하리(Johann Hari)의 <도둑맞은 집중력>(Stolen Focus)과 니콜라스 카(Nicholas G. Carr)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The Shallows)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은 정보 폭식에 시달린 채 집중력을 상실하고 혼란스러운 얕은 사고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고발하면서, 수동적으로 보고 듣는 방식에서 능동적인 책 읽기로의 전환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특히, 현대교회의 특성상 개인 삶의 색깔이나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더욱 선명해지고 다양화되는 '초개인화'(Hyper Personalization) 트렌드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한 몸'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소그룹을 다양화해 개성화된 성도들의 필요와 관심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일과 병행하여 지혜와 경험 많은 이들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일은 공동체를 위해 필수적이다. 지혜와 경험 많은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함께, 개인들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와 신앙 경험 역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성숙한 신앙 인격과 인생 경험에 기반한 노년기의 독서는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의 절실한 수요에 부응하기에 최적화된 삶의 방식이라 하겠다. **FAITH & LIFE**



✍️ 글쓴이 최점일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한 후 동(同)대학 치과병원 치주과 전공의를 수료했고, 미국 텍사스 치대 치주과 임상교수, 미국 로체스터 의과대학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은퇴할 때까지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주과 주임교수로 일했다. 부산 수영로교회 장로이다.

다시 보는 액티브 시니어

오창섭 (신경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한다. 최근 보험개발원의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수명이 90.7세, 남성 평균수명은 86.3세로 5년 전보다 각각 2.2세와 2.8세가 증가했다고 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남은 인생을 무얼 하며 보내야 할까? 은퇴를 맞이하는 50대 후반 또는 60대, 그리고 어떤 나이든, 우리는 항상 또 다른 장면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위해 새로운 출발선에서 있다. 이런 점에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신체 건강하며 경제력이 있으며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만 은퇴한 시니어(50-74세)를 일컫는다. '50플러스 세대'(50-64세)나 '신중년'(50-69세), '제3기 인생'(The third age, 40세 이후 30년), '골든 그레이'(50세 이후 50년) 등도 비슷한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이다. 흔히 황혼이 내려앉는 시기를 인생 후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상정해보면 5-60대는 겨우 오후 2-3시에 불과하다. 아직도 한창때이다.

지난 세월, 사회복지 교수이자 비영리단체 의미경영 및 의미경영연구소 대표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으며 교육과 상담, 코칭을 해왔다. 그동안 인생희년학교와 갈렙프로젝트, 인생재설계대학, 인생2모작과정 등을 교회와 학교, 지역사회 평생학습관에서 열었으며, 수많은 강연과 저술, 신문 연재, 라디오방송 출연 등을 통해 인생 후반의 의미 있는 삶을 설파해왔다. 한편으로는 "중년 복지나 인생 2막 복지관은 왜 없을까?"라고 입버릇처럼 되뇌이면서 말이다.

성경에서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에 땅은 원소유주에게 돌아가며 종은 해방되며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희년을 맞을 수 있다. 나이 50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희년은 오는 것이다. '액티브 시니어'를 향하여 희년의 나팔을 불어온 지 어느덧 15년이 다 되어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고 무력감을 느낀다. 일본 양

로원협회에서 주관한 세출 글짓기 대회에 다음과 같은 입선작이 있었다고 한다.

“LED 전구/ 내 남은 수명으로는/ 다 쓰지도 못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글씨체/ 사실은 손 떨림”

하지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사뭇 달라진다. 나는 위 시를 보고 이렇게 적어 보았다.

“떠가는 구름/ 옥상 뒷마루 앉아/ 인생을 본다”
 “할 일이 있어/ 아직도 남아있다/ 그 일을 하자!”

이런 삶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현재 필자가 섬기고 있는 ‘의미경영 및 의미경영연구소’이다. 은퇴는 삶의 한 장면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다음 장면의 시작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은퇴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점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다. 결국 ‘웰 에이징’(well-aging)의 문제로 귀착된다. 중년의 시기는 생존과 의미를 조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응원-허그’(Hug)가 필요한 세대들이다.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드리고 싶다. 반면 노년들은 어떻게 하면 후회없는 삶을 보낼 것인가에 방점이 있다.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뉴스타트(New Start)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 인생 후반에 접어들수록 시니어들은 자립과 건강, 참여가 중요하다. “나는 현재 어디에 있나? 일생동안 이루고 싶은 사명은 무엇인가?”를 물으며 우리 모두 부르심(Calling)과 보내심(Sending)이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 그 일을 즐겁게 해 나가야 한다. 인생 후반은 생기로운 여정이다. 단순한 추격도, 가혹한 경주도 아닌 목적의 나침반이 길을 안내하고 여유가 속삭이듯이 뒤를 받쳐주는 시기이다.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되 여유로운 포용 속에서 짐을 내려놓고 위로와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여 시간을 아끼되 그렇다고 젊은 날처럼 성공을 추구하는 몸짓은 곤란하다. 인생 2막의 무대 위에서 게으름이 스며들지 않는 가운데 휴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다. ‘무거운 의미’만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목적의식과 내려놓음의 조화가 필요하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비전과 사명, 가치를 중심으로 쉼새 없이 달려왔다는 것을 절감한다. ‘지금’ ‘여기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말이다. ‘무거운 의미’의 너그러움이 ‘가벼운 의미’를 지지해주어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104세인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껏 사회적 선을 추구해왔지만 아름다움과 사랑이 있는 인생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 아닐까. 문득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많은 사람을 ‘껴안아 주는 인생’으로 사는 것. 비전 가운데 위로와 공감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삶 말이다. 무엇보다 평생 현역으로 살기로 결심하시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 갑진년 새해에는 더 신나는 걸음으로, 그러나 속이 짝 찬 믿음으로 행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오창섭

신경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자 ‘의미경영 및 의미경영연구소’ 대표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사)경북정책연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행복한부자학회 회장, 대구동도교회 장로이다.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EMCU) 총장

최근 한국 사회는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시니어 세대'의 역할과 의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 즉 은퇴나 후 자기 인생을 단순히 마무리하는 존재, 소극적 조연자 역할이 아닌, 각자 영역에서 계속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 삶을 추구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신앙과 삶>(1+2월호) '사람 사이'는 인생 1막(경북대 교수 +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은퇴 후에도 여전히 역동적이고 멋진 인생 2막의 장을 이어가시는 대표적 시니어 양승훈 총장님과과의 인터뷰를 통한 통찰과 해안을 나누고자 한다.



인터뷰어 : 양성만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철학 교수)
일시 & 장소 : 2024년 1월 14일(주일) 오후 8:00(한국시간), Zoom 회의실
사진 & 정리 : 석중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양성만 총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우선 근황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승훈 2021년 8월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이하 VIEW)에서 은퇴하고, 2021년 10월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이하 EMCU) 총장으로 부임했으니 어 느덧 2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EMCU는 학생 1000명, 교직원 120명 정도의 작은 대학이지만 총장이 할 일은 큰 대학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각종 회의, 정부와 지속적 협상, 후원자 관리, 방문자 접견 등 여러 단체의 환영사, 축사, 격려사 등을 할 때도 자주 있고, 매주 한 번씩 교직원에게 보내는 *Internal Communications*(1-2면), 매달 쓰는 *Fellow-worker's Letter*(8-9면), 두 달 마다 이사회에 제출하는 *VC's Report*(8-9면) 등등.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퇴근까지 분주하게 일합니다. 감사한 것은 아프리카 외진 나라에 있지만, 인터

넷 덕분에 가족은 물론 한국사회, 교포사회 등과도 계속 접촉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대학교회와 지역교회 들에서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 설교도 합니다. 동시에 나이가 있으니 건강 관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200분 정도 걷고, 화요일에는 퇴근 후에 집에서 가까운 온천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악기 연주도 하지요.

양성만 총장님은 이미 퇴직을 두 번 하셨지요. 1997년 경북대 물리교육과 교수직과 2021년에는 밴쿠버기독교세계관 대학원 교수/원장 사역을 모두 마감하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EMCU 총장으로 계시지만 아마도 곧 세 번째 퇴직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양승훈 첫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제가 섬긴 단체는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입니다. 기독교

교 대학을 세우기 위해 힘과 기도를 모으는 단체였지요. 하지만 1990년대 중반 한동대가 설립되면서 “우리 손으로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VIEW를 설립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은 분이셔서 우리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현재 EMCU 총장으로 계속 사역하는 것은 27년 전에 그만두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 기독교 대학이자 VIEW가 소속된 Trinity Western 대학에서 24년간 근무한 후, 하나님은 이제 오래전 기도하던 기독교 대학을 한번 살펴보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저는 EMCU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기독교 대학이 무엇인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 교회와 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기회와 건강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양성만 교수님은 사람들이 이른바 ‘철밥통’이라고 하는 국립대 정년보장 정교수직을 그만두면서 오히려 “나는 하늘나라 철밥통을 갖게 되었다.”라고 자랑하셨어요. 이 표현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양승훈 제가 근무하던 경북대에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 죽음과 같은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IMF 외환위기가 오는 줄 알았다면 저는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 두 주 후 IMF 외환위기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캐나다에 가서 만 400일을 실업자로 지냈습니다. 정말 VIEW를 설립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나를 믿고 따라오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후 27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골짜기를 지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직장도 은퇴가 있지만

저는 은퇴가 없는 하늘나라 철밥통 직장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VIEW라는 직장이 영원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의 고용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은퇴하고 EMCU에 왔지만, 고용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늘나라 철밥통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양성만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물으면, 많은 경우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했으니 이제 쉬면서 즐기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총장님은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아울러 시니어 세대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 교회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할까요?

양승훈 첫째, 우리는 월급 받는 세상 직장에서 영원히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용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은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은퇴한 분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사는 것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두 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확인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저는 노인을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70세에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50대만 되어도 늙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혁주의자들의 말처럼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선물이라는 것은 기쁘게 살라는 의미이고, 달란트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각자 맡겨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받은 달란트로 주인을 기쁘게 하라는 의미지요. 이렇게 은퇴와는 무관하게 인생을 죽을 때까지 잘 사용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은퇴 후의 삶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전 7:4)라

고 했습니다. 은퇴하기 여러 해 전부터 경제적인 준비는 물론이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가족들과도 나누고, 특히 은퇴 후에 선교지에 나올 생각을 하는 분들은 배우자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대학에 계시는 분 중에 은퇴 후 선교지 대학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은 미리 부부가 함께 방학 때 선교지들을 방문해서 살펴보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재정과 건강, 언어(영어) 준비도 해야 하고요. 후원자들이나 파송하는 기관 하고도 논의해야 합니다.

양성만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교회에서 60세 이상의 비율이 37.7%로 이미 교회 내 최대 연령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에서 은퇴한 71세 이상의 성도 절반 이상이 교회사역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 내 시니어 세대 역할의 변화도 필요하거나 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양승훈 맞습니다. 요즘은 평균수명과 더불어 건강수명도 길어지고 있기에 70세가 되어도 건강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신체만이 아니라 정신적, 지적으로도 활동이 왕성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성숙함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과거와 같이 교회 직분에 대한 나이 정년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퇴 나이가 지난 분들이 계속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분야마다 최고 지도자의 적절한 연령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50-60세 사이가 지적, 영적으로 성숙하면서도 가장 활발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나 기관들의 최고 책임자도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65세 은퇴가 적절하지 않은가 합니다. 은퇴 후에는 최고 책임자가 아닌, 다른 위치

에서 돕는 것이 교회나 조직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제가 은퇴 후 다시 총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공채 총장이지만) 약간의 변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영어권 대학에서 총장을 해 보니 제가 한국의 대학, 캐나다의 기독교 대학, 미국 대학원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거의 빠짐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20년 이상 VIEW를 위해 영어권 대학 책임자들과 일했던 것, 11년간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목회를 했던 것, 캐나다 교단 지도자들과 일한 것 등이 도움이 되고요.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처럼 에스와티니는 장유유서(長幼有序) 전통이 강해서 '흰 머리'(grey hair)의 '권위'(authority)로도 덕을 봅니다. 즉 이 나라의 첫 의과대학 총장으로서 정부나 국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설득해야 할 일이 많은 데 도움이 되고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맡겨주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성만 다음 세대를 키우고 준비시켜서 자리를 이어받게 하는 것도 시니어 세대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VIEW에 계시면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 주셨는지요,

양승훈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2018년, VIEW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원장직을 후임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스스로 신체적, 지적으로 늙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VIEW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저와 연결되는 많은 분들이 대체로 제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VIEW의 네트워크 자체가 늙어간다는 의미여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리더십을 인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위해 몇 년간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후임자는 복음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언어적 문제가 없고 저와 15

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적으면 후임자도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은퇴 준비를 해야 하고요. 너무 젊으면 그 사람의 역량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서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와 너무 많은 관점 차이가 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양성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의 1세대 중 많은 분이 이제 은퇴할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각자의 현장과 학계에서 전문적 역량과 자원을 쌓아온 분들이지요. 따라서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양승훈 저는 모든 단체나 운동이 그러하듯이 창립 세대가 그다음 세대에게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그 단체와 운동이 오래간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동역회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상당 부분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좀 더 과감하게 세계관 운동에 열정을 가진 40-50대가 실질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면 어떨까 합니다. 즉, 1세대는 축적된 지혜와 경험, 인맥 등을 통해서 다음 세대 리더십을 응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세대가 볼 때 젊은 세대는 물가에 아이들 세워놓은 것처럼 위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니어 세대도 이전 세대가 볼 때는 위태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기존 세대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양성만 시니어 세대가 되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반대로 노년에도 특별히 더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울러 한국의 시니어 그리스도인들이 은퇴 이후에도 계속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가 되려면 어떤 준비와 자세, 용기 등이 필요할지요.

양승훈 노인 세대의 강점은 지혜와 경험이고, 약점은 완고함과 과거에 대한 자랑일 겁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사고가 경직되지요. 1980년대 초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시작할 때, 앞에 섰던 사람들은 당시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나 미국의 세계관 운동이 모두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관 운동의 큰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세계관 운동이라는 용어를 바꾸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최근 '세계관'이라는 말에 붙어 다니는 보수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편 저는 민수기 13-14장의 갈렙을 통해 시니어 세대 기독교 세계관 운동 지도자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80세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민13:30)라고 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제 현직에서는 물러나지만 갈렙과 모세처럼 인생의 마지막 스포트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 10년이 한국 선교가 시니어(실버) 선교사의 전성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1955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 즉 65세에 은퇴해도 아직 청년과 같은 지력과 체력에 더하여 경제력까지 가진 시니어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되던 시대에 태어나서 3만 불 시대까지 한국의 모든 발전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자신감을 선교지에 나누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 예장합동 선교부(GMS) 제2대 이사장을 지냈던 심재식 목사님이 은퇴 후 남아공에 마카다미아 농장을 만들어서 Immanuel International Bible College 모든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대표적인 '액티브 시니어' 삶의 가장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FAITH & LIFE**

예술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



나는 기독교적 가정에서 자랐고 미션스쿨을 나왔지만 젊은 시절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신앙과 직업을 별개로 생각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대학에 자리를 잡고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가 불혹의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이 전환점이 되어 이전과는 다른 모양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로 생긴 변화는 신앙과 직업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접하면서 현저해졌다. 안동대 신상형 교수님의 추천으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되었고, 전공인 미술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신국원 교수님과 최태연 교수님을 알게 되면서 개혁주의 예술과 미학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술과 미학에도 학문적 탁월성을 갖고 계신 분들 덕분에 내가 종사하는 미술 분야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동참하게 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동역회의 기관지 <신앙과 삶>은 주제가 매회 달라짐에 따라 원고도 그에 맞추어 준비해야 했다. 그동안 다루어진 특집 주제는 ‘공공선’, ‘저출산’, ‘ChatGPT’, ‘재난사회’, ‘생태환경’, ‘난민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많았는데, 우리 사회의 현안들을 기독교적 맥락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공부였다. ‘전시장 내 미술’이 아니라 ‘공동체 속의 미술’의 가능성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관련하여 미술계에서 필자가 섬기는 단체를 소개하고 싶다. 크리스천 작가들로 구성된 ‘아트미션’(회장 천동욱)이란 모임이 그것이다. 이 모임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 확립을 비전으로 매해 정기전과 특별전, 학술회, 앤솔로지(anthology) 발간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작년에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생명 돌봄’을 테마로 55명의 작가가 생명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기념전을 가졌다. 그동안 진행된 여러 행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구성된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술 공동체 속에서 삶과 비전을 공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아트미션은 매해 크리스천 아트 포럼을 열고 학술지를 발간하는데 동역회의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서 지금까지 17권을 발간할 수 있었다. 예술 분야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예술가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 곧 예술은 무엇이고 왜 예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며, 예술가로서의 소명과 문화적 책임에 대해 알려주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가 말한 '탈주술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예술가들에게 성경적 인생관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내가 개혁주의 예술을 연구하게 된 것은 예술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데서 출발하며 그분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장 칼뱅, 아브라함 카이퍼, 한스 로크마커,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C. 시어벨트, 존 윌슨, 루셔스 뒤보, 윌리엄 더니스, 마코토 후지무라 등을 연구하면서, 시각 예술 부문에서도 종교개혁의 유산과 가능성을 조명하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고 이 시대의 예술가들에게 이를 소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에 기초한 예술을 공공장소에서 발표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미술대학에서조차 터부시되고, 혹 모독적이거나 탈선적인 작품이 아니라면 미술 저널도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는 것처럼 성민(聖民)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워졌음을 실감하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의미가 투영된 작품을 하는 예술

가는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자신의 작품의 형식적 특성, 테크닉 또는 표현방식에 대한 발언에 만족해야 한다. 작품에서 진지한 대화의 결여나 정체성의 누락은 예술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세계를 누락시키기 때문에 치명적인 수밖에 없다. 핵심적인 가치가 공공의 장에서 물러나 은둔의 세계 속에 갇혀 버린 셈이다. 일터에 있으면서 나는 그런 문제들과 씨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목격해왔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수월하지 않다. 용기 있는 예술가라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예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일터에서의 긴장과 하중을 견딜만한 영적·이론적 훈련이 요구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그리스도인 작가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종교개혁과 그 예술적 유산을 점검하는 것을 숙제로 여기고 있다. 이제는 퇴임도 했으니 미루어온 연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은사를 부여하신 목적은 일차적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 유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매번 느낀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현존을 증거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를 드리곤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우리의 목표는 박사가 아니라 작은 예수이다

이재성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박사과정)



대학원 시절을 생명력이 있고 기쁘게 보낼 비결이 있을까? 과학도로서 실험의 감옥에 갇혀있어도, 일 감옥에 갇혀있어도 생명력이 있고 기쁘게 지낼 비결이 있을까? 대학원생이 하는 일 속에서 정말 기쁜 순간은 참 드문 것 같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실패가 기본이고, 논문이 채택되는 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학원생 뿐일까? 주변을 보면 삶이 너무 반복적이라며 새로운 자극을 찾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보다 비교우위에서 앞서간다는 것은 그 비결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미 서울대에 입학하고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고등학교 시절에 비교우위에 서는 것이 삶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행복의 큰 분기점이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실제로 입학해보니 참 허무했다. 이제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목표로 살고 있다. 그렇게 할 때 이 허무함은 반복될 것이 뻔했다. 따라서 대학원 생활에서도 비교우위에 앞서는 것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해답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감옥에서 생명력과 기쁨을 보인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찬송하게 된다(행 16:25). 서신서들에서 이 기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기쁨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빌 1:4).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기쁘다.”(빌 1:18).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골 1:24). 이렇게 영혼들을 돌보는 일, 즉 전도와 양육에 그 비결이 있었다.

나는 대학생 시절 이러한 성경 인물들의 모습과 교회 선배들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변 영혼들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삶에서 생명력과 기쁨이 흘러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나는 인생의 모든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단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근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복음을 통해 이 온갖 죄의 영향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 기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삶은 힘들었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나를 당장 천국으로 안 부르시는지 기도하게 되었다. 그때 얻게 된 응답은 영혼들을 돌보라는 것이었다(빌 1:23-24). 오늘 감사기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

라를 완성하신다고 하실 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꽃피울 것이고, 어쩌면 각 영역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할 수 없는 일, 누릴 수 없는 일이 있어 보였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초대하고(눅 16:26-31),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었다. 살면서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매일의 교제 시간과 최소한 영혼 한 명 돌보기만큼은 계속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대학원생 시절에 개인적으로 꾸준히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을 돌보려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기쁨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마 28:19-20)을 체험한다는 것이다. 나는 현재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 도와줄 경로는 노방전도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캠퍼스에서 노방전도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리다 보니 오히려 누군가 복음을 들어주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라고 느낀다. 거의 매주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 더욱이 영혼이 연결되고 정착까지 하게 되면 진짜 그날은 그것 때문에 밤에 퇴근할 때도 잠이 들 때도 한 해를 돌아볼 때도 너무 기쁘다. 매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마 6:33, 고후 9:8)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논문이 채택될 때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전도와 양육을 하는 나는 연구에 쓰는 시간이 다른 이들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험을 실수해서 다시 실험했는데 실수한 실험이 오히려 더 좋게 되어서 이 실수의 도움으로 작성하게 된 논문도 있었다. 지난여름, 수련회 기간인 8월 중순에 논문작업을 하지 않도록 6월 말에 미리 다른 학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실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제출할 수 있었고 채택도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정신없이 지나가는 기간에도 뚜렷한 의미가 남는다는 것이다. 너무 바쁘던 기간에 돌보고 있던 대학생 중 한 명이 너무 힘들어하며 밤 열두 시에 전화를 걸어 온 적이 있었다. 한 시간 정도 상담을 해주었는데, 내게는 그 시간이 그달에 가장 뚜렷이 남은 감사한 기억의 사건이었다.

우리의 정체성은 '작은 예수'가 되는 데 있다고 배웠다. 대학원 생활을 하며, 이리다가 뛰어난 박사가 되지 못하면 어찌지 싶은 때가 있다. 친구들을 보면 논문을 정말 잘 내는 사람도 있고, 진짜 작은 교수가 된 것처럼 잘하는 대학원생들도 본다.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다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곤 한다. 그러나 설혹 박사가 못 되거나 장차 교수가 못되어도, '작은 예수'만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더 돌보며 믿음으로 그런 삶을 걸어갈 때, 인내로 기다릴 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재성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박사과정 중에 있다. 복음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메시지의 증인들을 양육하려고 하면서, '번역 AI'를 통해 선교사들을 돕기를 꿈꾼다. 서기연(서울대기독교인연합)의 준회원 캠퍼스 선교단체인 ECU와 서초동 주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다. 서울대 기독대학원생 독서모임 멤버이다.

번아웃 탈출기, 온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김반석 (한신대 신학대학원 4학기)



나는 불과 1년 6개월 전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던 한 명의 전도사, 신학생이자 청년이었다. 사역했던 교회는 조금 특이했다. 담임목사님이 오랜 기간 계시지 않다가 청빙이 되었고 그 과정도 참 어려웠다. 기존에 사역하던 교역자들은 나를 제외하고 모두 사임을 했다.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역자들이 하나둘 부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몇 안 되는 교역자들과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그러나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들은 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첫 부임 목회자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로 인해 어느 순간 나는 교육 부서에서 베테랑 교역자이자 믿고 맡기는 사역자, 만능 백업 맨이 되어 있었다.

만능 백업. 참 좋은 말이다. 하지만 실상은 구멍이 나면 24시간이고 대신 메꿔야 하는 자리였다. 실제로 영상 자막과 음향 담당자들의 부재로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고, 금요 예배 반주팀에서 드러머가 공연이나 여러 사정으로 못 오게 되면 내가 들어가서 반주를 대신하기도 했다. 언젠가 학기 중에는 전임 교역자들의 워크샵으로 인해 새벽예배 인도와 설교를 한 적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은 모두 나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또, 나는 원래 담당하던 부서뿐만 아니라 그 아래 부서까지 맞게 되면서 약 9개월간 두 부서를 동시에 담당하기도 했다. 다행히 두 곳 부서 선생님들이 서로 협력하여 부서가 잘 운영이 되도록 도와주셨기는 했다. 하지만, 그만큼 짊어진 무게감이 참 버거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담당 목사님의 요청으로 청년부 예배 음향도 담당하게 되면서, 나는 주일에 점심 끼니까지 거르고 지내게 되었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문제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었다. 이전부터 청소년부의 몇몇 아이들의 드림 레슨을 하고 있었고,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였다. 교육 부서 다른 교역자들은 그 시간에 자기 부서 일을 다 마쳤지만, 나는 레슨 이후 부서 예배 준비 일 등을 계속해야 했다. 때때로 다른 전도사님들이 부서실의 음향이나 사역에 관한 질문을 하면 그 부분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잠을 자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주일에 점심을 먹지 못하면서까지 주어진 사역을 계속하다 보니 스트레스와 상처가 쌓이게 되었다.

나는 계속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결국 번아웃 되었다. 따스한 어느 봄날, 나는 사역을 하는 것에 대

해 큰 회의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약 20킬로 이상 체중이 증가했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괜찮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마침내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지나고 나서는 “교회에서 사임하라고 하면 사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의 번아웃 증세는 가을까지 지속했고, 추석 명절 무렵에는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어린 시절 몇 번의 우울증 증세를 경험했고, 약물치료 없이 극복했었기에 이번 증세도 쉽게 극복하리라 생각했다. 교육국 담당 목사님께는 “많이 아프지만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고 있고, 빨리 잘 극복할 테니 옆에서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라고 진솔하게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분은 알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셨다. 그러나 일주일 후, 교육국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사임을 통보받았다. 나의 우울증세를 이유로 말이다. 다른 이유도 분명 있었다고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이유로 사임이라니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곧장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목회 실습을 위해서라도 다른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다행히 곧 새 교회를 인도받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못했다. 오랜 시간 아프고 나니 조금씩 괜찮아졌지만, 나의 내상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지금도 남아 있고, 실제로 옮긴 새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여러 차례나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학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고, 내 자아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에 크게 흥미를 느끼고 기독교 상담학 분야로 졸업 논문을 쓰기로 했다. 논문 제목은 ‘목회자 번아웃에 대한 고찰’이다. 나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현시대 젊은 목회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

한 고민을 담았다. 논문에는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담았는데, 결론 중 하나는 목회자들이 목회자라는 직분을 때로는 온전히 내려놓고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목회자가 목회자라는 직분에 사로잡혀 버리면 제대로 쉬질 못하니 인간으로서 온전히 쉬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의 청년으로, 한 명의 예배자로 지내고 있다. 아팠던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한다. 잘 회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소명의 자리에서 충실히 또다시 건강하게 감당하고 싶다.

누구나 아프고 힘들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회, 그리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너른 마음으로 다른 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반석

한신대 신학대학원(M.Div) 4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채플 찬양팀 'Let's'의 드러머로, '임마누엘' 성가대의 테너로 활동했다. 현재 목회자의 삶을 잠시 내려두고, 한 명의 청년 예배자로 돌아가 몸과 마음의 재화를 하면서, 교회 드림 보수 출장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

홍해지 (국립박물관단지 교육학술부 학예연구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4개월 전 이직해 세종시에서 지내고 있다. 갑자기 이직하게 되면서 다니던 대학원도 휴학하고, 아무 연구도 없는 이곳으로 이사와 짧은 시간 동안 삶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직 새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과 새로운 곳에서의 일상에 적응하는 중이다.

2년 전쯤, 직장생활이 무료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이직을 간절히 바라던 시기가 있었다. 마침 석사도 졸업해서 나 스스로는 그때가 이직의 가장 적기라고 생각했고, 주일 예배 시간에 들었던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며 확신했었다. 그러나 좀처럼 내게 이직의 기회를 잘 열어주시지 않아 무척 상심했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다시 직장이 다닐 만 해졌을 때, 결코 생각지 못한 기회와 방법으로 이직의 길을 열어주셨다.

돌이켜보면 마치 지금의 직장을 오기 위해 짜인 것 같은 준비의 과정들이 있었고, 서류와 필기시험을 거쳐 면접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다. 처음부터 잘될 것

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합격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예상했던 대로 합격 통보를 받았고, 그때부터 임용등록 마지막 날까지 기쁨과 기대보다는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예상이 가능한 미래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미래를 두고 두려움이 찾아왔다.

면접을 보던 날 잘하고 오라던 엄마의 응원에 “하나님 뜻이면 붙겠지”라고 한 대답이 얼마나 가볍게 한 말이었던지, 하나님의 뜻은 뒤로하고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이직의 손익을 끊임없이 저울질했다. 연봉이며 직급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새롭게 주어질 이 ‘스펙’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그것들이 예전 직장과 학업을 내려놓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등 여러 생각이 온통 나의 머릿속을 채웠다.

이직하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는데, 새롭게 주어질 기회들은 확실하지도 않고 어떤 것들인지 알 수도 없었다. 예전 직장동료, 선후배와 동기, 지도교수님을 포함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물었지만,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도, 내 결정을 대신 해 줄 수



도 없었다. “하나님 뜻이면 붙겠지”라며 이전에 내가 뱉은 말이 스스로 찢리기도 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기에 무척 괴로웠다.

그 일로 며칠을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민했지만, 이직을 결정한 계기는 매우 사소했다. 그러한 결정에는 마음을 후비는 치명적인 말씀을 주시거나 누군가를 통해 마치 계시처럼 확신을 주실 것 같았는데, 쉽게 흔들리고 한없이 가벼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었을까? 직장에서 평소 같았으면 몇 마디 투정으로 넘어갔을 별거 아닌 일이 못내 서운했고, 문득 내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미리 염려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예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걱정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나의 미래와 새로운 일터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마음도 점차 커졌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가볍고 하찮은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고, 그런데도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부지런히 인도하시는 주

님을 경험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그 계획은 언제나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놀랍고 감격스럽다.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전의 일터를 떠날 수 있어 감사하다. 새로운 직장과 삶을 두고 걱정하며 기도했던 문제들은 작은 문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세심히 살피시며 해결해 주셨다. 좋은 믿음의 직장 선배와 동료들을 만나게 하였고, 새 업무를 맡으며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나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고 있다.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모든 직장인의 삶이 그렇듯 완벽하게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마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가나안이 축복의 땅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몸과 마음을 지키며 살기에 많은 위기가 있었던 땅이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얼마 안 된 관계들과 적응 중인 업무 가운데 매일 주어지는 도전과 과제들이 있다. 이곳에서 선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나의 표정과 말,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새로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지혜롭고 순전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홍해지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교육학술부 학예연구사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석사를 졸업하고 동(同)대학원 미술교육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 매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며 주어진 작은 일들에 충성하기를 노력하고 있다.

‘동역회’와 ‘기학연’과 함께 하는 삶 가운데서

방윤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 학회 담당 간사)

불교 집안에서 홀로 교회를 다니셨던 어머니의 신앙 덕분에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놀이터처럼, 가장 안전한 안식처로 여겼고, 많은 관계적인 경험을 쌓았다. 그러던 중, 20대 후반에 세계관적 회심을 경험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의 배움도 버릴 것 하나 없이 감사했지만, 감정에 따른 기복적인 신앙은 옳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동시에 총체적인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며 회의감을 갖기도 했다. 그런 혼란 속에서 감사하게도 나를 지탱해 준 것은 공동체에서 함께 해석한 성경 말씀과 피상적이지 않은 관계였음을 고백한다.

내가 세계관적 회심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던 청년부 목사님을 따라 교회 개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니며 알맞은 교회 공간을 찾는 일부터 시작하여,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돕기까지 교회 창립 멤버로서 헌신했다. 양재동에 개척한 서향교회에서 청년 중심의 사역을 통해 소그룹을 강화하고 피상적 교제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도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따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서향교회는 오히려 청년들이 늘어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2022년 12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보성교회와 서향교회가 합병하여 ‘둘이 하나되어 위대한 교회’를 모토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데 동참하고 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 사무국에서는 학회 담당 간사로 일하고 있다. ‘동역회’ 사무국에 들어온 지 두 달이 지나자마자,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재인증 평가를 받아야 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권장하는 재인증 평가를 통과해야 했는데, 재인증을 받으면 6년간 등재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재인증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학회지 편집장과 편집위원님들 및 학회 임원분들과 함께 밤낮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였다. 지난 자료들을 정리하고 기록하면서 ‘기학연’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많은 분과 함께 고생한 결과 감사하게도 좋은 성적으로 ‘등재지 유지’ 평가를 받았다. 평가를 마치고 스트레스로 생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기는



했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기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현재 2년 차 간사로서 여전히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미리 이 길을 개척하신 믿음의 선진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음에 늘 감사하며 일하고 있다.

‘동역회’에 일하면서 마음이 따뜻했던 적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역이 축소되었던 시기를 지나 조금씩 오프라인 모임이 늘어나던 2023년 5월, 배재대학교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를 하기 전 1박 2일로 진행되었던 ‘동역회’ 임원 수련회가 인상이 깊었다. 오랜만에 만난 임원분들은 반가운 마음에 늦은 시간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었다. 다양한 사회 이슈와 개인적 상황, 그리고 ‘동역회’의 앞으로의 방향과 행보까지... 이토록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이분들의 청년 시절은 어떠했을까? 이제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연배이시지만, 오랜 세월 하나님 나라의 동지로서 서로를 비춰주며 서로를 이끌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동역회’는 1980년대 기독교 대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그 작은 모임이 지금은 등재 학

술지 <신앙과 학문>을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연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의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학문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까지 ‘동역회’를 이끌어오신 교수님들과 임원분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학자로서, 부모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이끌어 오시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신앙을 가지고 씨름하셨으리라. 나이만 청년일 따름인 무기력한 나에게 큰 도전을 던지고 계신 교수님들과 임원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이제 ‘동역회’는 차세대 젊은 학자들에게 좋은 유산을 잘 전승해야 하는 길 위에서 있는 것 같다. 사회 이슈로도 대두되는 세대 간 갈등과 격차를 우리가 잘 풀어갈 수 있을지, ‘동역회’ 사무국 학회 간사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이 끊이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가길 기대해본다. 개인적으로는 학회장님과 편집장님을 도와 더 내실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더 완성도 높은 학회지를 펴내는 데 일조함으로써, 학자와 학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과 더불어 세상을 조금이나마 이롭게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오랜 기간 후원해 주시는 회원분들에게 사랑받는 ‘동역회’가 되길 바란다. **FAITH & LIFE**



✍ 글쓴이 방윤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 학회 담당 간사이며, 용산구 보광동에 소재한 보성교회 청년으로서 오랜 기간 청년부 리더로 섬겨왔다.

인생의 끝에서 ‘인생’을 돌아보다

- 영화 <버킷 리스트> (라이너 감독, 2007) -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누구에게나 끝은 다가온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에 이 지상에서 생명은 유한하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갈망은 있지만, 그것은 단지 소원일 뿐이다. 언젠가는 이 아름답고 찬란한 지구를 떠나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과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홀로 ‘그 마지막 길’을 가야한다. 이 ‘끝’, 개인적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다. 이 개인적 종말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문명으로 인해 죽음에 다가가는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중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자연사(自然死)를 앞당긴다. 백세 시대에 백세 장수가 쉽지 않다. 각종 질병은 자연스러운 생노병사(生老病死)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병자를 당혹하게 한다. 생활에서 배출되는 환경호르몬이 세계적 재난을 일으키는 중이다. 암을 이길 수 있다면 인류는 획기적 생명 연장을 얻게 되겠지만 현재도 완치의 길은 멀다.

존엄한 마지막에 묻다, <버킷 리스트>

암이라는 질병으로 죽음을 앞둔 두 노인. 카터(M. 프리먼)는 자동차 정비로 가족을 성실하게 부양한 사람이다. 교수가 꿈이었던 그는 젊은 나이에 첫 아이를 갖게 되면서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평생 기름때 묻히며 살아왔다. 행복한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로 살아가던 중 말년에 암이 발견된다. 성격 때문인지, 믿음 때문인지 담담히 받아들이는 카터. 같은 병실에 실려온 톰(J. 니콜슨). 그는 자수성가하여 백만장자이다. 여러 번 결혼



한 경력의 자유분방한 인간. 딸이 있지만 의절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고독하고 고집스럽다. 한 병실의 두 남자. 그들은 살아온 과정이 너무 달라서 좀처럼 가까워질 수 없었는데, 카터의 메모가 공동 작업에 빌미를 준다. ‘버킷 리스트’(The Bucket List,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를 적은 종이를 톰이 읽는 것이다. 톰은 카터의 메모에 자기의 리스트를 적어넣는다. 둘은 인생의 마지막을 지나면서 함께 여행할 마음을 먹는다. 그들은 그렇게 우정어린 사이로 버킷 리스트를 하나씩 완수하며 인생을 정리한다. 복극을 지날 때 카터는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며 창조주의 신비한 창조를 언급한다. 톰은 합리적 현실주의자, 그는 믿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피라미드를 바라보며 카터와 톰은 역시 다른 관점을 드러낸다. 카터는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나 톰은 부질없는 상상이라며 일축해 버린다. 타지마할에 온 두 사람. 톰은 제약이 사랑하는 왕후를 위해 무덤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장인이 동원되었는지 놀란다. 카터

는 제왕이 보였던 간절한 사랑에 목이 메인다. 같은 시대를 살아갔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론을 펼치는 두 노인. 세계관이 극명하게 갈린다. 이제 대도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온 노인들. 카터는 식구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가운데 칭찬을 받는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웃음꽃을 피우고 음식을 나눈다. 사랑이 무르익는 가정. 그러나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내려다보이는 고층 아파트에 돌아온 톰. 그를 반겨주는 이 아무도 없다. 홀로 커피를 만지며 쓸쓸한 현실에 젖어든다. 하지만 아직 완수하지 못한 버킷 리스트가 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묻다

여행 중 카터가 톰에게 묻는다. 천국 갈 때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 하나는 인생에 기쁨을 느꼈는가. 다른 하나는 남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는가. 톰은 고개를 가로 젓는다. 돈을 바라보며 질주한 인생에서 그런 기쁨을 나눌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큰돈을 모으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지만, 항상 혼자였다. 더구나 죽음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재물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주님은 인생이라는 엄숙한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물으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눅 12:20) 톰은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한다. 카터가 준비한 우정의 선물은 딸과의 화해였다. 톰은 카터의 간곡한 부탁으로 용기내어 딸을 찾아간다. 톰은 딸의 거부를 미리 겁내고 있었다. 그런데 상황은 그 반대. 오히려 딸의 환대를 받고 손녀의 키스를 받는다.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라는 목록은 이렇게 완수된다. 이제 “장엄한 장면보기”라는 마지막 리스트는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버킷 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

서 꼭 하고픈 것은 무엇일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리스트를 적어보며 실행 가능한 것들을 해 보는 일은 의미 있으리라. 바울 사도는 고백한다.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4). 인생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는”(전 5:15) 길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며 시작이다. 그러므로 육체적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초월적 믿음이 요구된다. 폴 트루니에의 인생론은 이 경우 잘 표현되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험이다.” 이 표현을 다르게 읽어본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행이다.”

인생의 종말, 서서핑 선교사의 삶으로 보다

개화기에 처녀의 몸으로 한국 선교를 위해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 셰핑(E. Schepping, 독일 출생 1880~1934). 우리말 이름은 서서핑. 그녀는 작은 예수로 선교에 혼신을 다하다 영양실조에 걸리고 풍토병으로 쓰러져가던 중에도 이런 좌우명을 써놓았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Not Success but Service). 노년의 시대에 인생을 돌아본다면,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다 ‘얼마나 섬겼는가’에서 의미와 가치를 얻어야 하리라. 진정한 의미의 존엄한 죽음은 여기에 달려 있지 않겠는가!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현대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 phil)을 공부했고, 최근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권력과 신앙: 허틀러 정권과 기독교>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육체의 쇠락 : 장 바티스트 피갈(Jean Baptiste Pigalle)의 〈나체의 볼테르〉 감상

심상용 (서울대학교 미술관 관장)

“삶은 난파선이지만, 구명보트에서조차 노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Voltaire)의 말이다. 평생 신분증처럼 그의 몸에 붙어 다니면서 그의 정신과 사상을 대변했다는 말은 이렇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평생을 다해 싸울 것이다.” 관용론의 함축이다. 실제로 볼테르는 기독교(신교)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고 표현의 자유와 사고에 대해 열렬히 옹호하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쓴 개신교도들의 복권과 배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해 나서기도 했다. 근대정신의 옹호자, 구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격한 고발인, 미처 계몽되지 않은 시민계급을 위한 계몽의 철학자답지 않은가.

하지만 70대 나이에 이른 볼테르의 육체는 뼈만 남아 앙상하다. 인생에 복수라도 하듯 시간이 그의 전신을 빠짐없이 공략했다. 얇아지는 한 울도 남아 있지 않고, 치아는 모두 빠져나가 입 모양을 꼭 다문 것처럼 만들었다. 가슴팍의 살은 오간 데 없고, 남은 거죽은 맥없이 중력에 이끌릴 뿐이다. 복부는 오글쭙글쭙한 주름투성이가 된 데다 사지는 근육 대신 불거져 나온 정맥들로 덮

여 있다. 늙어간다는 것은 물질들이 빠져나가고 오롯이 정신만 남는 물질의 해체과정이다.

그 한 가운데서도 볼테르는 여전히 노래를 불렀을까? 한참 산화 과정을 겪는 중인 이 계몽주의자의 육체 가운데 유독 두 눈만큼은 영롱하게 빛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조각가 장 바티스트 피갈(Jean Baptiste Pigalle)은 그럴 것으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관람자들이 ‘감각적이고 물질적이고 죄 많은’ 몸뚱이에서 순수하고 관념적인 영혼에 이르는 플로티누스적 정화과정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이다.

신체의 쇠락은 부끄러운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몸의 쇠락과 그것을 타고 체계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은 삶 이상으로 주의를 집중해야만 하는 문제다. 볼테르는 구명보트에서조차 삶을 노래할 것을 권하지만, 구명보트조차 없다면 어디서 노래를 부를 것인가? 볼테르가 그토록 비판적이었던 기독교의 수사이자 경건주의 사상가이기도 했던 토마스 아 캠퍼스(Thomas à Kempis)는 삶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즐겨워하는 삶에 대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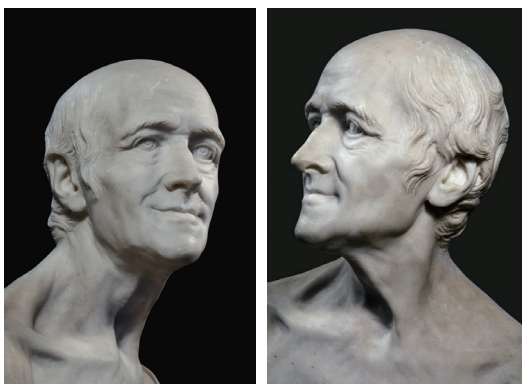


장 바티스트 피갈(Jean Baptiste Pigalle),
 <나체의 볼테르 Voltaire nu>, 1776.

“이제 너는 죽을 때를 당하여 무서워하기보다도 도리어 즐거워할 만큼 그렇게 살기를 도모하라.”

하지만 어떻게 삶의 한가운데서 죽음을 노래할 수 있는가. 토마스 아 캠퍼스는 하늘의 것을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육체의 소욕, 육의 본성을 따르는 대가는 땅으로 끌어 내려질 뿐이다. 육체의 쇠락은 쇠락일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육체의 쇠락 자체를 마치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깨우는 신호라도 되는 양, 늡음을 지성의 우수성으로 슬쩍 바꿔치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망상에 가까운 일이다.

하늘의 것에 대한 사랑은 펜이나 지성이 아니라 은총으로부터만 허락된다. 헛된 자기만족을 피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힘은 은총으로부터만 온다. “은총은 사람을 땅에서부터 위로 끌어 올려 하늘의 것을 사랑하게 만든다.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이 변화는 은총의 산물이고, 결과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새롭게 되는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심상용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이자 서울대 미대 교수이다.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 8대학에서 조형예술학 석사와 박사(D.E.A.), 파리 1대학에서 미술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속도의 예술>, <현대미술의 욕망과 상실>, <그림 없는 미술관-대중시대 미술관의 모색과 전망>, <명화로 보는 인류의 역사>, <천재는 죽었다>, <기대 감소의 시대와 근시 예술>, <인생에 예술이 필요할 때>, <NFT, 처음 만나는 세계> 등이 있다.

백세시대 시니어로 살기

전명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백세시대 시니어로 살기〉 / 김동배 / 좋은피알 / 2019.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가 않을 정도로 실제 90세에서 100세까지 사는 것이 편안한 시대가 다가왔다. 개인적으로는 20대 학부 때와 대학원 때 노인복지 강의의 들은 은사님의 글이기도 하여 책을 읽는 내내 교수님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지기도 하였지만, 이 책은 정말 시의적절하게 어르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남은 삶에서 어떤 주제를 화두로 하여 살아가시시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모든 세대의 독자들이 한 번쯤은 쉽게 읽어보면 좋을 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먼저, 〈백세시대 시니어로 살기〉라는 책 제목은 저자와 동년배 어르신들에게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이여 이렇게 삼시다!”라고 격려하면서 말을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 또한 15년이 넘게 대학에서 인간행동과 발달에 관한 수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많은 학자들은 인간 발달에 대해 영유아기나 초기 아동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여왔지만, 중년기 이후 노년기는 65세 이후를 한 단계로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왔다. 최근 성인기 발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

고 더 오래 살게 되기 시작하면서 노년기 시기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들에게 어떤 발달적 과제나 소명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60대와 70대 이상이 지혜를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보다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저자 또한 이 시기에 이러한 글을 책으로 엮어낸 열정을 보이셨다는 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백세시대 시니어로 살기〉는 저자가 코로나 이전 3년간 쓰셨던 칼럼을 모아서 집필하신 것이라 한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백세 시대에 살아갈 시니어의 모습이 숲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하나하나의 글 자체로도 완성도 있게 각 주제로 다가오는 것만 같다. 처음 책을 읽기 전에는 얼핏 제목만 보고선 백세시대라고 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주로 건강하게 백세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책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좋았던 점은 화자 자신이 어르신들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이 들어감’(aging)을 아름답게 수용



하고 승화시키고 계신 모습 그대로 자신이 백세시대로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것을 소소하게, 때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 책은 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게 되는 생각들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젊은이들과 중년기에 속한 이들도 읽는 것도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백세시대에 시니어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라는 모습을 아래 후세대들에게 공감적으로 나누어주는 파스한 책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니어로 살아가면서 얻게 된 가치를 상생, 도전, 소속감, 경청, 수용, 세대간 교류, 나라를 생각하시는 마음의 충정, 그리고 삶을 정리하면서 신 앞에 겸허함을 갖추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등의 응축되어 나타나는 내면 깊은 곳에 담겨있던 가치들이 빛을 발하며 하나씩 하나씩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나와서 우리를 만나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을 ‘노인’이라는 틀에 가둬두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보게 된다. 어

르신들로서도 배움을 받지만, 한발 앞서간 선배의 모습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값진 선물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치들처럼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과 같이 경청하며 수용하는 미덕과 삶의 지혜를 가진, 그리고 ‘빨리빨리’가 아닌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조금 느리게, 그러나 가야 할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 인생의 멘토가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 흐뭇한 기대 속에서 나 자신도 백세시대에 합류해서 이 시대를 살아내 보고자 다짐해 본다. **FAITH & LIFE**



✍ 글쓴이 전명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부 전공으로 가족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혼 가족 등에 관한 연구와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여 왔다.

미디어는 종교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상상한다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미디어, 종교로 상상하다〉 / 박진규 / 컬처미디어총서 / 2023

〈미디어, 종교로 상상하다〉의 저자 박진규 교수(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는 미디어와 종교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그리스도인 사회과학자이다. 그는 이 책에서 ‘미디어와 종교’라는 얼핏 보면 다소 이질적으로 여겨지는 이 두 영역이 오히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관계 상황에 주목한다. 미디어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를 발견하는 핵심 장소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이다(232면). 저자는 책의 집필과 관련해서, “오늘날 종교는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고 그 답으로 2000년대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매개 종교’(mediated religion) 현상, 즉 한국의 미디어 속에 나타난 종교 자료의 분석을 통해 찾아낸 ‘잠정적’ 결론을 담았다고 했다(12면). 또 저자는 책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다.

“여러 사례를 분석하면서 처음 떠오른 핵심어는 ‘기대’였다.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종교를 향한 세속 사회의 평가에는 특정한 기대가 자리한다. 미디어는 세속성의 원리에 따라 규정된 일련의 기준을 삼아 종교를 비판하기도, 칭찬하기도 한다. 그 기대의 구체적 목록을 분석하면서 ‘상상’이라는 또 하나의 핵심어가 도

출되었다. 세속 사회 속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바로 이 말에 함축된다고 판단했다.”(13면).

〈미디어, 종교로 상상하다〉라는 제목 안에 전체 내용과 방향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저자가 독자와 나누려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종교의 가시성이 크게 높아진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향후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전망하는 준거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 사회의 현재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변화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자가 서론 격인 1장에서 모두 열 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개요를 소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매개 종교’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이 미디어와 종교의 교차점 분석에 지니는 유용성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속에서 종교와 미디어가 만나는 몇 개의 지점들을 통해 이 책의 논의가 담아낼 다양한 화두를 짚어 본다. 4장

에서는 종교에 대하여 비판적이 저널리즘 사례를 분석하고 그 비판이 궁극적으로 함의하는 바를 종교에 대한 '기대'(expect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역으로 5장은 종교 집단이 미디어를 바라보는 방식과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종교가 미디어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결과를 논의한다. 6장, 7장, 9장은 미디어 텍스트를 통해 종교에 대한 세속 사회의 '기대'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룬다. 8장은 초월성과 초자연성이 등장하는 픽션 텍스트를 통해 종교를 다루는 미디어의 궁극적 관심은 결국 매우 현실적 차원에 있음을 확인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10장에서는 미디어와 종교를 '상상'(imagination)이라는 개념으로 연결하여 한국 사회에서 이 두 영역의 만남이 함의하는 바를 정리한다.”(24-25면).

이러한 전개를 통해서, 저자는 '매개 종교' 속에 드러난 세속 사회의 종교를 향한 네 가지 '기대'를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233-244면). 첫째, 종교는 그 사회의 일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종교는 각종 사회 문제에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무언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셋째, 종교는 사회에서 정신적, 영적인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종교는 사회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가치, 규범, 질서와 차별되는,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종교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한마디로 '더 나은 세상'으로서의 사회 변혁에 대한 열망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회 변혁을 위한 과정에서 종교를 통한 상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자는 종교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사회 변혁의 불씨를 지피는 '상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최초의 원동력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미디어는 종교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상상한다.”(253면). 반면에 미디어는 다시 종교가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249면). 이것이 바로 저자가 주목하는 미디어와 종교 사이에 있는 건설적 관계의 요체이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가 미디어의 종교 비판을 그 사회의 종교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 있다는 방증으로 읽어야 한다고 본다. 즉, 세속 사회는 종교를 향한 비판을 통해 역설적으로 아직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더 나은 세상을 실현하는 데 종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와 종교의 관계 방식의 함의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사회 변혁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지를 성공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신앙의 본질적 차원을 넘어서 “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종교가 필요한가?”라는 종교사회학적 물음에 답을 찾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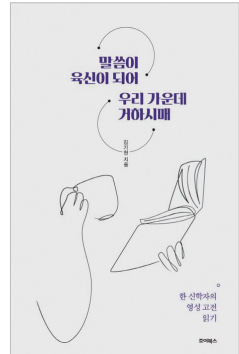


✍ 글쓴이 석중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이다. 지난 28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줄곧 섬겨왔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종교철학, Ph.D), 서울대학교교회 목사(2012-2016)를 역임했다. 현재 침신대 겸임교수, 상대원침례교회 협동목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어깨 위의 어깨로

이진희 (원주중앙침례교회 목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 김기현 / 죠이박스 / 2023.

책도 싫은데 고전이라니. 꾸릿한 오래된 종지와 잉크 냄새, 누렇게 빛바랜 이해할 수 없는 암호들, 벽에 못 하나 박지 못할 백면서생 주제에, 세상 모든 진리를 품은 양 고고한 척 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하루치 삶의 숙제도 산인데 또 뭐 하려고 고생 또 고생 거인의 어깨까지 올라야 하는가. 그럼에도 나의 인생에 가장 충만한 순간을 꼽으라 한다면 '읽을 때'이고, '쓸 때'이다. 열심히 살아도 바람 빠진 풍선이 될 때면 어김없이 읽는 것에서 멀어져 있다. 반대로 정신이 쏙 빠질 만큼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도 멀쩡히 서 있을 때는 책에 닳줄을 내리고 있을 때이다. 그러니 또 펴 본다.

'생태계 교란종' 누군가 이 책의 저자 김기현을 그렇게 불렀다. 신학과 철학을 넘나들고, 과거와 현대, 동양과 서양을 가로지르는 그의 깊이가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가벼이 나풀거리는 유튜브 시대에 학자라는 표현에 가장 가까운 인물인 그는 여러 저서를 통해 좋은 글 선생으로 판명이 났다. 특히 <공격적 책 읽기>, <공감적 책 읽기>, <부전자전고전>, <근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로 서평의 새장을 열었고, 많은 중생을 독서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나도 그들 중 한명이다. 이번에는 그의

전문분야인 신앙 고전이다. 만권의 사람 김기현이 선택한 고전은 무엇일까?

책은 2부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부는 10권씩 총 20권의 신앙 고전을 다룬다(여는 책과 닫는 책을 합치면 22권이다). 무거운 주제와 달리 가독성이 짝이다. 세월이 검증한 고고한 지혜가 작가의 손끝에서 소화하기 딱 좋은 모양이 되었다. 동시에 학자다운 깊이와 날카로운 비판으로 그 맛이 달콤하면서도 씹쌀하다. 덕분에 이 책은 고전의 높은 진입 장벽을 도전하게 하는 좋은 계단이 된다. 선정된 도서도 대부분이 널리 알려진, 혹은 책장에 몇 권쯤 있을 법한 책이라 관심이 더 간다. 독자들이 서문에서 포기해야만 했던 거인들을(고전) 저자는 능숙하게 요리한다.

일단 목차만 봐도 배가 부르다. 아타니시우스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파스칼 <팡세>, 본회퍼 <성도의 공동생활>, 짐 윌리스 <하나님의 정치>,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엔도 슈사쿠 <침묵>, 앙드레 지드 <탕자, 돌아오다>, 헨리 나우엔 <영적 발돋움>

움), 물리노스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 귀고 2세 <수도사의 사다리>,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 등등. 지적 욕구를 마구 자극하는 고전이 즐비하다. 설명도 좋고, 저자가 추천한 ‘함께 읽을 책’은 더 좋다. 좋은 안내자 덕분에 베일 벗겨지니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솟구친다. 개인적으로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성 요한의 <어둔 밤>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너무 좋았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싶어 신이 났다. 허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닌 게다. 그러기에 어머니가 젖을 떼기 위해 젖가슴에 쓰디쓴 먹칠을 해 두듯, 어머니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메마름과 내적 암흑 속에 두신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고, 사랑 받지 못한다고 야단법석 떠는 아이와 같다. 더 좋은 것을 주기시기 위한, 성장을 위한 과정인데 말이다.”(79)

‘하나님의 부재’를 이리도 친절하게 설명한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그 깊이와 울림이 다르다. 같은 제육볶음이라도 ‘선미식당’(우리 집 앞 맛집)에서 먹는 것과 집에서 먹는 것이 다르듯 고전의 가르침에는 무언가가 있다.

이 책은 그저 고전만을 소개하는 목록이 아니다. 저자는 22권의 책을 통해 ‘영성’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힌다. 한국교회가 그렇게도 외치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영성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몸으로 살아내는 일”이라 정의한다. 말씀이며 영이신 하나님이 육이 되셨고, 육이 되신 예수님은 글(성경)이 되셨다. 그 글을 따라 육이 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다. 20여 명의 대가들 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말)을 삶(몸)으로 살아낸 ‘영성’의 실체인 것이다.

다 좋은데, 도대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케케묵은 고전이 무슨 필요일까? AI가 인간을 대신하고, 전기차에 우주여행도 코앞인데. 근의 공식도 모를 위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웬걸 의미가 있다. 변하는 것은 세상이지, 말씀도 사람도 변하지 않는다. 그들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다. 그들의 고민은 나의 고민이고, 나의 고통은 그들의 고통이었다. 그러니 고전에는 나의 고민에 대한 대가들의 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수백, 수천 년을 건너온 보물이 거기에 있다.

이 책을 보니 왜 글과 가까이할 때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는지 깨닫는다. 읽는 것이 전부는 아니나 영성의 일부, 그것도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이다. 읽는 것과 멀어질 때 삶은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팽과리가 된다. 소크라테스도 이를 알아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입을 때 성찰이 일어난다. 특히 고전은 무엇보다 맑은 거울이다. 빙빙대며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저자) 덕분에 나는 난쟁이 위에만 올라가도 되니 감사할 뿐이다. 최고의 고전 가이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를 강추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이진희

현재 원주중앙침례교회에서 두 명의 친구와 팀 사역을 하는 목사이다. 대학 선교단체 IVF를 통해 만나 사랑하는 아내와 두 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이다. 뉴올리언스 침례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고, 현재 원주 단계동에서 교회와 마을, 성도와 이웃이 함께할 공간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섬김의 대상을 넘어 섬김의 주체로

윤재호 (정릉교회 정릉평생대학 학장)



서울 성북구 정릉 지역에 최초로 개척된 정릉교회(담임목사 박은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는 일제강점기 말이었던 1942년 6월에 무속신앙이 활개 치던 골짜기이자 600년이 넘는 고찰(古刹)들이 터잡은 땅에 한 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를 심으며 시작됐다. 특히 1975년 국내 최초로 '정릉경로대학'을 설립하여,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덜고,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2011년부터는 예전의 경로사상을 넘어, “노인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정릉평생대학'으로 그 이름을 변경했다. 5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노인 평생교육 이념의 개척자로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1호 '사회교육장'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정릉평생대학은 2학기 제도로 학사가 운영되며,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강의, 신입생 환영회, 연 2회 소풍, 수련회, 연말 종합발표회 등이 있다. 동아리는 무용, 성경공부, 열린 마당, 하모니카, 노래 교실, 등산, 서예, 스마트폰, 난타, 요가부, 실버 체조, 사랑방 등이 있고, 동아리마다 전문 강사가 배치된다.

정릉평생대학의 특징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자치적이다. 재학생 학우회와 졸업생 동문회 등 자치 활동이 활성화돼 있으며, 동문 경조사, 봉사 및 선교, 체육대회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교육적이다. 명사 특강, 시창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생산적이다. 1980년 3월부터 쌈짓돈을 모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돕자는 뜻에서 시작한 장학사업이 명실상부한 장학회로 발전하였고, 1989년부터 자매결연을 하여 돌보아 온 국립서울현충원 내의 무연고 묘지 정화사업, 양로원과 고아원 위로 방문 등에 참여하고 있다. 넷째, 공동체적이다. 졸업 후에도 친목회를 결성하고 선한 일에 함께 앞장서고 있다.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마 13:31-32)에 등장하는 겨자 나무는 아름답지가 아닌, 새 한 마리가 깃들여도 흔들릴 정도로 연약하지만 어떤 세도 마다하지 않는 따뜻한 나무이다. 앞으로도 정릉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 노인들과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살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윤재호

서울 정릉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장로이며, 정릉평생대학 학장, 정릉교회 새봄위원회 위원장이다.



정릉교회 정릉평생대학 수료자 소감문

백발은 영광의 우리 면류관



저는 현재 86세 늙은 나이 학생입니다. 2019학년도에 정릉평생대학 제45기생으로 수료하였고,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동문 청강생으로 '스마트폰 동아리'에 참가하였습니다. 연말 종합발표회에서 우리 동아리원들은 학습한 내용을 발표했고, 우리 대학의 자랑스런 교가를 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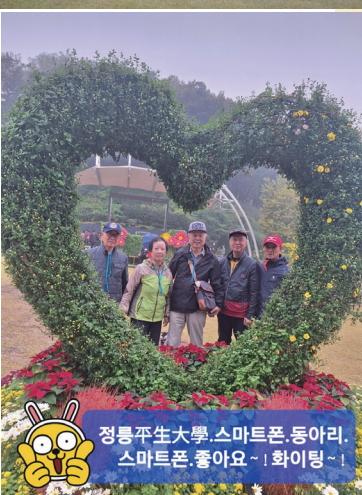
- 1절 복악산 기슭에 영기찬 터전 우리들 배움터 여기 세웠네
 다같이 모여서 새생활 배워 믿음과 희망의 사랑 꽃피네
- 2절 백발은 영광의 우리 면류관 힘차게 배우니 슬기 샘솟네
 새세대 발맞춘 보람된 생활 내조국 우리집 영원 빛내리


교가 부른 후 우리 스마트폰 동아리 구호 3창을 외쳤습니다.

제가 "정릉평생대학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았더니 "친한 사람의 권유를 거절 못 하고 어쩔 수 없어서"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 정릉평생대학 구성원들이 처음에는 소극적 동기로 입학하였다가 차츰 적극적, 긍정적 성향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그 모습들이 적극적, 긍정적 모습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학우들과 눈이 마주쳤는데도 무표정하거나 못 본 체한다면 소극적, 부정적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 소풍 때 우리 동문 선배님 한 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거동이 불편한데도 소풍 행사에 참여하여 많이 움직이기는 어려워 적당한 자리에 앉아 호수 출렁다리 경관을 바라보기도 하며 행사 시간 내내 밝은 표정으로 일행과 함께 즐기는 그 모습에서 적극성, 긍정성을 봅니다.

우리는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음으로 몸도 마음도 노쇠하고 우둔하여지며 외로움과 우울함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화를 우아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며 살아가는 지혜를 정릉평생대학에서 배웁니다. 나이를 더해 갈수록 소극적으로 의기소침하기 쉬운 우리에게 변천하는 생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정릉평생대학은 우리나라 제일의 명문입니다.

우리 45기생들이 단합 모임을 했었는데, 이 모임 경건 순서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 이념과 잘 부합되는 말씀이라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 평생교육 이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우리에게 구현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글쓴이 이승현



정릉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은퇴 안수집사이다. 정릉평생대학 45기 수료생이며, 총학생 감사이다.

판 프린스터러의 기독교 세계관(I) : 생애와 배경



19세기 네덜란드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판 프린스터러(Groen van Prinsterer, 1801-1876)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에게 큰 영향을 준 그리스도인이다. 특별히 그는 개신교 정통주의 신앙인으로서 프랑스 혁명의 반신앙적 성격을 주목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반혁명당 창당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판 프린스터러의 사상을 다루는 것은 초기 네덜란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신앙과 삶>은 ‘온전한 지성’ 지면을 통해 3회에 걸쳐 간략히 나누고자 한다.

판 프린스터러(Groen van Prinsterer)는 1801년에 출생하여 1876년에 타계했다. 프린스터러의 정식 이름은 기욤 흐룬 판 프린스터러(Guillaume Groen van Prinsterer)이다. 사람들은 판 프린스터러에게서 그의 이름 기욤(Guillaume) 이외에는 네덜란드적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하곤 했다 한다. 프랑스식 이름인 기욤은 아마 그의 유아 세례 시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짐작될 뿐 정확한 연원은 알지 못한다. 어쨌든 그는 철두철미 네덜란드 사람이었다.

당시 유럽은 혁명의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1789년, 그러니까 판 프린스터러가 태어나기 약 10년 전에 프랑스 혁명이 발생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과 함께 시작된 1789년 혁명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까지 아울러 ‘프랑스 혁명’이라고 한다. 뿐더러 당시에는 스페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를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 크고 작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판 프린스터러는 그 생애의 많은 부분을 혁명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았다. 판 프린스터러의 생애는 혁명을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의 유명한 강연의 제목이 ‘불신앙과 혁명’인 것이 이상하지 않다. 참고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1837년에 태어나 1920년에 타계했으므로 판 프린스터러의 생애와 40년이 겹친다.

17세기는 네덜란드의 황금기였다. 암스테르담은 유럽 교역의 중심지였고, 암스테르담을 드나드는 배의 톤 수가 전체 유럽을 드나드는 배의 톤수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세워 세계 제1의 무역 강국이 되었고, 동남아시아와 인도와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했다. 뉴암스테르담이 뒤에 뉴욕이 되었다. 동인도 회사는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에 세운 회사였다. 영국은 1600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고 네덜란드는 2년 후인 1602년에 설립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었다. 그러나 식민지를 놓고 강대국인 영국 및 프랑스와 벌인 네 차례의 전쟁으로 국력이 쇠하더니 마침내 네 번째 전쟁인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네덜란드는 강대국의 지위를 잃고 대신 영국이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당시에 확장 정책을 펴던 프랑스는 1793년 네덜란드에 선전포고하였고, 1795-1806년에는 네덜란드에 친 프랑스 바스티아 공화국을 세워 네덜란드를 통치했다. 뒤이어 1806-1810년에는 나폴레옹(Napoléon)이 네덜란드에 홀랜드 왕국을 세우고 자기 동생 루이 보나파르트(Louis Bonaparte)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더니 1810-1813년에 네덜란드를 프랑스에 병합시켰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패퇴한 1815년, 네덜란드는 독립국의 지위를 획득하여 윌리엄 1세가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다. 네덜란드 역사에서 1795-1813년은 '프랑스 시기'로 불린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판 프린스터리는 목사 집안에서 출생했다. 그의 조부, 증조부, 고조부가 모두 화란 개혁교회(Dutch Reformed Church)의 목사였다. 하지만 판 프린스터리의 부친인 피터 야코부스 흐룬 판 프린스터리(Pieter Jacobus Groen van Prinsterer)는 의사였다. 온건한 개혁주의자였던 부친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으며, 유능한 의사로서 네덜란드 사회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는 루트헤르(오늘날의 수상에 해당하던 인물), 루이 보나파르트, 뒤에는 윌리엄 1세의 왕실 주치의였다. 그의 국가적 공로로 그는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는 '중신 고문'(Raad van State: Council of State)에 임명되었다.

판 프린스터리의 부친은 1797년에 23세의 고아인 아드리아나 헨드리카 칸과 혼인하였다. 그녀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가장 부유한 상속녀 중 하나였다. 그들은 세 명의 자녀를 두었다. 첫째는 1799년생 딸인 코르넬리아 아드리아나, 둘째는 아들인 판 프린스터리, 셋째는 1806년생 딸인 마리아 클라지나였다. 코르넬리아는 로테르담 출신의 부유한 상인이던 마리 호프만과 혼인하였다. 호프만은 25년 동안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막내인 마리아는 법률가인 요한 안토니 필립스와 혼인하였다. 뒤에 그는 상원 의장을 지냈으며 명예직인 '재상'(Minister van Staat: Minister of State)이 되었다. 판 프린스터리의 가정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귀족 가문이었다. 그의 기본자세가 보수주의자였던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유럽의 보수주의는 한국의 보수주의와는 다르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익집단에 더 가깝다.

판 프린스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나타냈다. 그의 부친 야코부스는 판 프린스터리가 자기 뒤를 이어 의사가 되기를 원했다. 당시 그 가정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했을 때 판 프린스터리가 최고의 교육 기회를 가졌으리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부친 야코부스는 1837년에 타계할 때까지 아들의 교육과 활동에 예의주시했다. 이런 사회적 조건은 판 프린스터리의 교육과 성장과 향후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장이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FAITH & LIFE**



글쓴이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거짓과 속임의 역사>(드림북), <중생과 자기 부인>(드림북), <홍해에서 요단까지>(성의책방), <땅에 기록된 하늘의 법>(성의책방) 외 다수가 있다.

2024년 제1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5일(월) 오후 7시 삼일교회

- 안건 : 1) 2023년 결산 및 감사 보고
2) 2024년 예산 편성안, 2024년 임원 선출
3) 2023년 사업보고 및 2024년 사업계획안 승인

2024년 제1차 이사회 개최 안내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5일(월) 오후 4시 30분 삼일교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24년 5월 18일(토) 13시~18시(대학원생 논문발표 10시~12시)

장소 : 부산외국어대학교

2023년 제2차 실행위원회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23일(토) 오후 7시 동역회 사무실(수서동)

* 실행위원 10명 참석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前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표기는 신임, 임기 : 2023.01.30.~2025.01.29.)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사람과삶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안송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승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용준(한동대 교수), 박해일(경희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김태황(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윤현준(숭실대 교수), 부총무 박지희(성균관대 초빙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박해일(경희대 교수, 뇌과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이화여대 교수, 국제어문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신용철(숭실대 교수, 서양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대표)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CTC(유경상 대표)

1. CTC 온라인 교육

- 기독교 세계관 교육 지도자 과정 : 4기 기본과정, 3기 강사 과정 수료

2. CTC 캠프 사역

- 캄보디아 청소년세계관캠프(1월 22~26)
- 나니아세계관캠프(2월 14~15일)
- 성광교회 공부세계관학교 교사 세미나(1~2월)

3. 기독교 세계관 지도자 교육 광고 안내 (5기 기본 과정 & 4기 강사 과정 3월 개강)

- 모집기간 : 2024년 2월 18일까지
- 교육기간 : 1년 4학기(매학기 8주, 총 32주)
- 교육대상 :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독교세계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 교사, 사역자
- 지원방법 :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

※ CTC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참여 신청은 CTC 사무국(010-3673-8439) 또는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 2024년도에도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종교)에 CUP 출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피터 워커 지음 | 박세혁 옮김)가 선정되었다

신간 소개



〈천로역정〉 존 버니언 지음 | 옮김 | 전면칼라 512면 | CUP

“이 책을 적어도 백 번은 읽은 것 같다. 읽어도 읽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 책이다.”

- 찰스 스펀전

“오십 년이 넘는 동안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 읽었다. 모든 고전 중에서도 뛰어난 고전이다.”

- 제임스 패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3년 11월, 12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3년 11월	2023년 12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3년 11월	2023년 12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1,500,000	2,600,000	인건비	일반급여	5,300,000	5,300,000
	임원회비	1,250,000	1,06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3,852,500	4,462,500		소계	5,700,000	5,700,000
	기관후원금	3,000,000	3,4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388,495	458,477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93,791	177,095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4,500	102,790
	VIEW후원금	1,185,000	1,170,000		식비	466,660	304,200
	기타후원금	0	0		수선비	0	0
	월보구독료	468,500	423,500		복리후생비	1,123,130	923,130
	학술지원금	0	0		퇴직연금	426,280	426,28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컴퓨터	47,000	0
	기타	0	0		회의비	0	166,89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55,000	55,000	
			기타(지급수수료)		364,538	137,211	
			소계	3,974,394	3,656,073		
기타수입	일반이자	0	8,622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164,825	1,124,825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1,224,550	1,184,550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1,196,800	2,659,800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638,32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70,000	0
	예수금	472,160	472,160		소계	1,266,800	3,298,120
				기타	세금	101,730	171,560
			잡비		11,100	300	
			소계		112,830	171,86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0	447,400
					세계관기타	0	0
소계	0	0	소계		0	447,4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10,000	110,000	학회	학회강사료	1,300,000	0
	학회행사수입	890,00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800,00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1,712,586	7,711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인쇄비	0	0
	학술지게재료	0	5,090,000		학술지발송비	0	0
	저작권료	1,946,589	0		학술지심사료	0	0
	학회기타수입	5,000	0		학회기타	4,040	0
	소계	2,951,589	5,200,000		소계	3,016,626	807,711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1,171,190	937,29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937,290	974,075
	전월 이니시스 입금	160,000	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0	10,000
	소계	1,331,190	937,290		소계	937,290	984,075
당월 수입액		16,070,939	19,844,072	당월 지출액		16,232,490	16,249,789
전월 이월액		22,684,287	22,522,736	차월 이월액 (잔액)		22,522,736	26,117,019

* CMS, 이니시스 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3년 11월)

3천5백 생명의강, 5천 강대용, 강연희, 공승건, 광도웅, 구성덕, 권지연,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삿뿔, 김성권,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손영일,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재수, 장현일,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택, 지경순, 진성자,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동재, 고철용, 권경호,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남진, 김봉우, 김도형, 김동원, 김민석, 김병국, 김병용,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삿뿔,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세령, 김수민,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이람, 김이론,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환, 김재정, 김정일, 김정은, 김정진,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중철, 김자남,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복,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남상우,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호,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박안, 박동현, 박명옥,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종욱,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이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일, 안석, 안성희, 안승범, 양성진, 양성철, 양행도,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환,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우희, 유건호, 유경재,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우,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다나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수형,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홍훈, 이원도, 이원준, 이유미,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종철,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해리, 이해로,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승규,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해(양중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재섭,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근, 조성권, 조성욱,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기현,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현석, 최혜경,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동빈,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연, 허현, 홍구하, 홍요셉, 홍정석, 홍종인, 홍만석, 황기철, 황도용, 황성준, 황성연, 황세환, 황의찬, 황혜수, 1만5천 Miya Toshiko,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2만 김미리, 강용완, 고선욱, 구준호, 기민석, 김보경, 김용석, 김인수, 김정옥, 김정호, 김태진, 박기모, 박학일, 박홍식, 서선정,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성, 이간, 이기서, 이연우, 장인석, 정훈,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2만2천5백 백예은, 2만5천 한은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김현경, 류동규, 문준호, 박성태, 박신현, 박종국,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잡지현,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홍준, 추대하,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운, 우병훈, 5만 강다엘,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황준용, 6만 석준중, 송종철, 조성봉, 조혜선, 호남신학대학교도서관, 10만 박영주, 손봉호, 손정영,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12만 김민철, 박문식, 15만 박안나, 최원일, 30만 박동열, 45만 김지원, 100만 정희영,

계 8,476,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재교회, 다은공동체교회, 새연약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김기현),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원동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계 2,950,000원

전체 11,426,000원

회원후원

(2023년 12월)

3천5백 생명의강, 5천 강대용, 강연희, 공승건, 광도웅, 구성덕, 권지연,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삿뿔, 김성권,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손영일,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재수, 장현일,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택, 지경순, 진성자,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백예은,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석분,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동재, 고철용,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남진, 김봉우, 김도형, 김동원, 김민석, 김병국, 김병용,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삿뿔,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세령, 김수민,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이람, 김이론,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환, 김재정, 김정일, 김정은, 김정진,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중철, 김자남,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복,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남상우,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호,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안, 박동현, 박명옥,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종욱,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이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일, 안석, 안성희, 안승범, 양성진, 양성철, 양행도,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환,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우희, 유건호, 유경재,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우,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다나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수형,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홍훈, 이원도, 이원준, 이유미,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종철,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해리, 이해로,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해(양중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성규,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재섭,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근, 조성권, 조성욱,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기현,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연, 허현, 홍구하, 홍요셉, 홍정석, 홍종인, 홍만석, 황기철, 황도용, 황성준, 황성연, 황세환, 황의찬, 황혜수,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2만 강용완, 구준호, 김보경, 김용석, 김인수, 김재환, 김정옥, 김정호,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성, 이간, 이기서, 이연우, 장인석, 정훈,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2만5천 한은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김현경, 류동규, 문준호, 박성태, 박신현, 박종국,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홍준, 추대하,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운, 우병훈, 5만 강다엘, 고양제일교회, 고재교회,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다은공동체교회, 새연약교회, 손정영,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일원교회, 전희경, 정은애, 황준용, 6만 가톨릭대학교신학대학교서관, 강진규, 김현, 배덕만, 석준중, 송종철, 수원가톨릭대학교서관,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유용옥, 장수영, 장점연, 12만 김민철, 박문식, 서우경, 이종민, 최점일, 현창기, 15만 최원일, 홍숙의, 16만 장혜원, 50만 이재희, 200만 조성표,

계 9,886,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재교회, 다은공동체교회, 새연약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 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원동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산본교회, 삼일교회, 수영로 교회, 30만 (사)기독교드림스교회, 100주년기념교회,

계 3,450,000원

전체 13,336,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충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셋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심리학, 오하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전(前)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종교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세계관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We envision a life uniting faith and scholarship
within the Christian Worldview.



동역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관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되어주세요.

친구추가를 하시면 매주 웹매거진을
보내드리며, 동역회와 학회 소식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함께해 주세요.

1. CMS 신청

본 기관에서 회원님을 대신하여 CMS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CMS 신청서 및 자세한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이체

후원자님께서 거래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계좌이체

국민은행 602-01-0667-971 | 예금주: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 신용카드 결제

KG이니시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회비 및 후원금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5. 연간회비 납부도 가능합니다.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

사무국 (02-754-8004 대표번호)

회원구분	월 회비	카카오웹진	신앙과 삶	신앙과 학문 (등재학술지)	논문 및 칼럼 다운로드	논문 투고자격	동영상 강좌	기부금 영수증
정회원	10,000원 이상	●	●	●	●	●	●	●
저널A	5,000원	●	●		●		●	●
저널B	5,000원	●		●	●		●	●
온라인회원		●			●		●	